ECONOMY

환율

고도(Altitude)를 기다리며

LS증권 2026 하반기전망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실

2026. 5. 12

Part I At a Glance
Part II **달러인덱스**: 1. 달러인덱스 펀더멘탈
2. 달러스마일 시대의 종료
3. 새로운 연준호 출범
Part III **원달러환율**: 1. 경기와 금융환경, 하락 우위
2. 환율 변화의 구조적 변화

LS증권

경제/환율
Economist **최광혁**
kh.choi@ls-sec.co.kr

LS증권 **최광혁**입니다.

원달러환율의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한 원달러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위기를 반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5월 8일 기준 달러인덱스는 사태 이전인 2월 27일 대비 0.64% 상승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1.67% 상승하면서 리스크를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상승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입니다. 엔달러환율은 0.52%, 달러유로환율은 -0.7%로 **전반적으로 준기축 통화는 달러의 강세분과 유사한 변동을 보였고, 준기축이 아닌 통화는 일부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원달러환율의 기본 레벨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어,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1,500원과 1,600원에 쉽사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원달러환율의 하향 안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높이(고도)의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도달점이 상당한 높이(고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고도 하락은 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고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Part Ⅰ **At a Glance**에서 확인되듯이 이란 사태로 인한 원달러환율의 상승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사태 발생 이후 옵션 시장에서의 투기적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 외화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격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Part Ⅱ **달러인덱스(91pt ~ 100.5pt)**는 중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보다는 하단이 제한되는 하락세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TINA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채 규모 증가와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의 내재가치는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유로화나 엔화 등의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달러 자체는 싫지만 결제를 위한 대체 통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달러의 사용을 늘리는 그림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정책 개입에 대한 전망은 제외하고 판단했습니다.

Part Ⅲ **원달러환율(1,400원 ~ 1,515원)**의 고레벨은 이제는 구조적 변화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의 증가가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의 원달러환율 레벨은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수급 요인이 단순히 원화의 약세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아 이란 사태 진정 이후 안정적인 하락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금리, 유동성 등 대부분의 지표는 환율의 하락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트리거가 발생한 만큼 하반기의 하향 흐름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LS증권 2026 하반기 전망: 환율 | **고도(Altitude)를 기다리며**

Part I 08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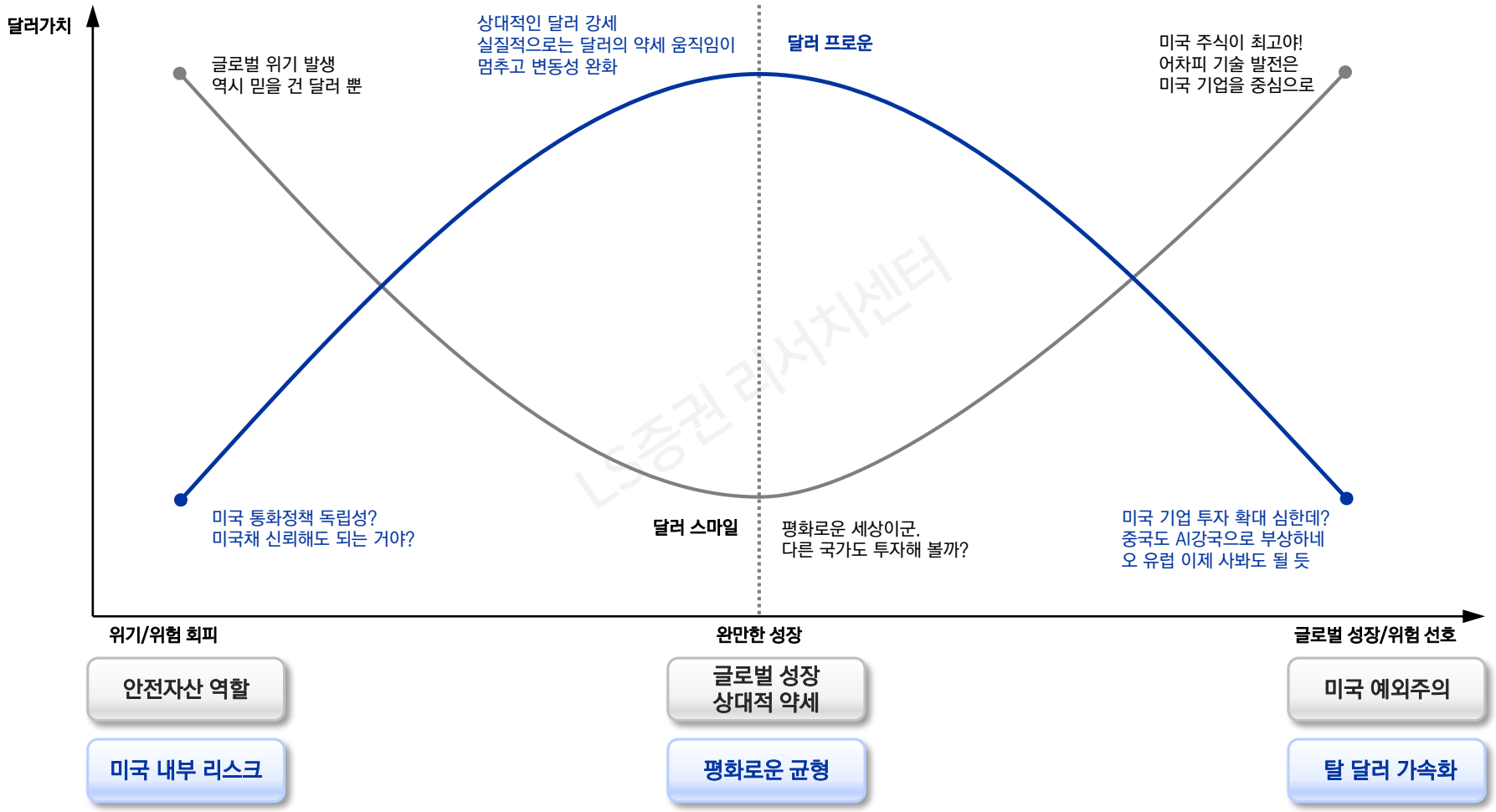
Part II 14 달러인덱스

1. 달러인덱스 펀더멘탈
2. 달러스마일 시대의 종료
3. 새로운 연준호 출범

Part III 42 원달러환율

1. 경기와 금융환경, 하락 우위
2. 환율 변화의 구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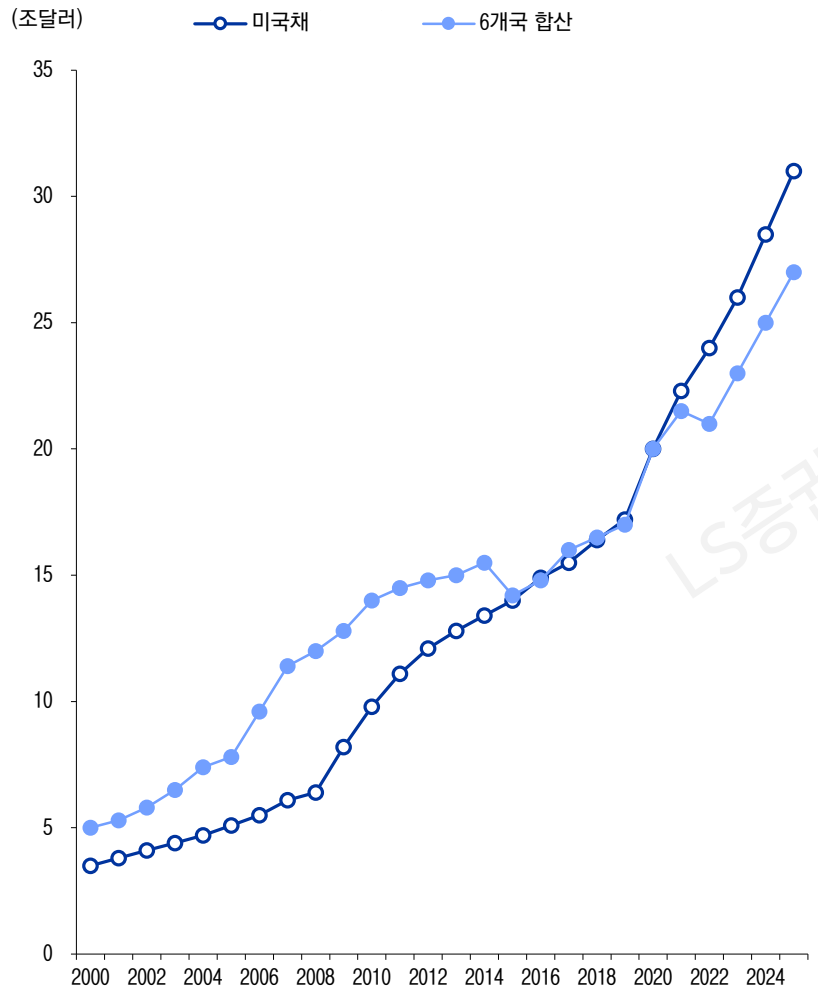
Key Chart 1) 달러 스마일에서 달러 프로운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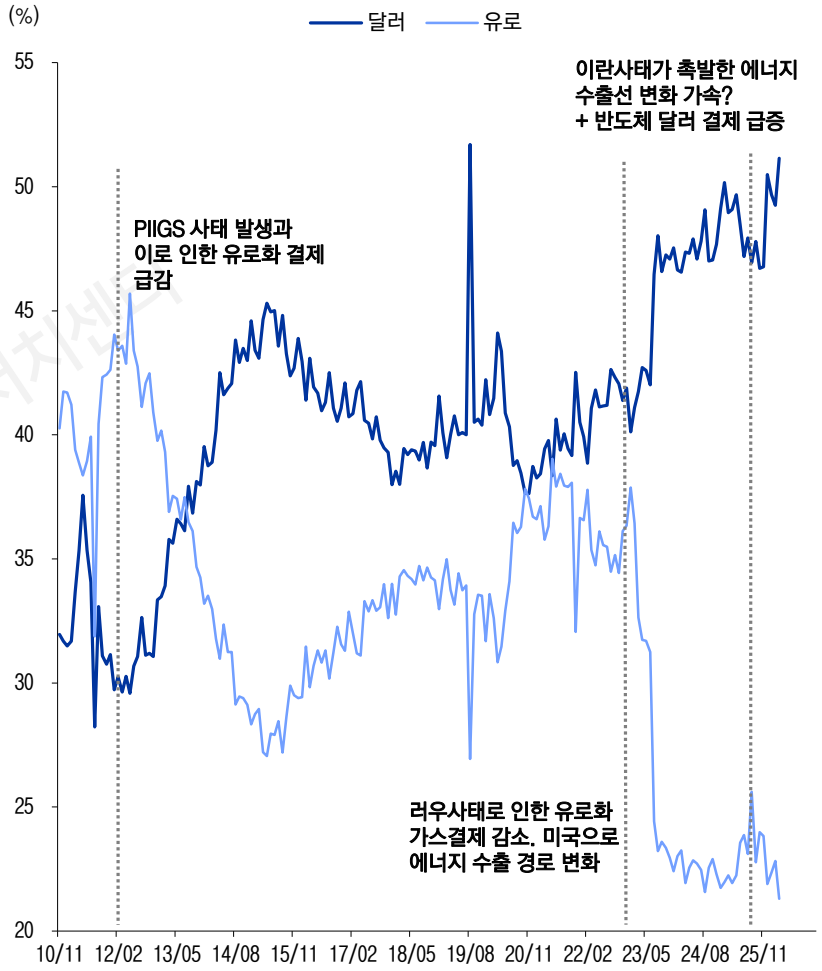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2) 달러의 하방 지지요인, 대안이 없다

급격히 늘어난 미국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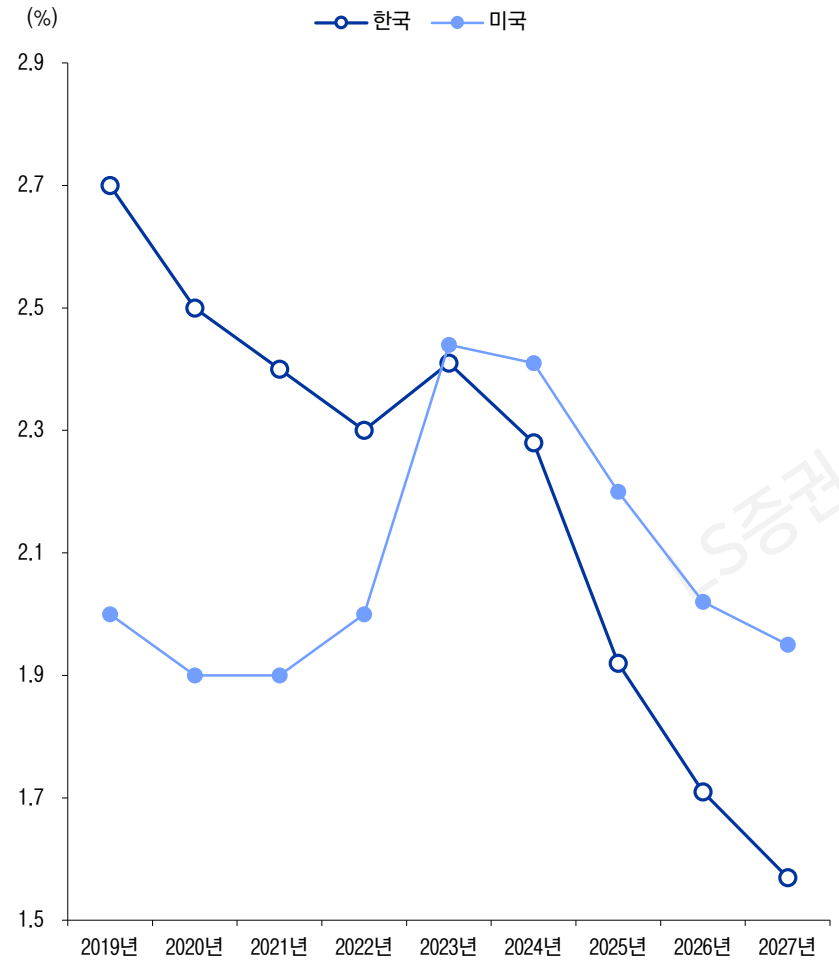
페트로달러 + AI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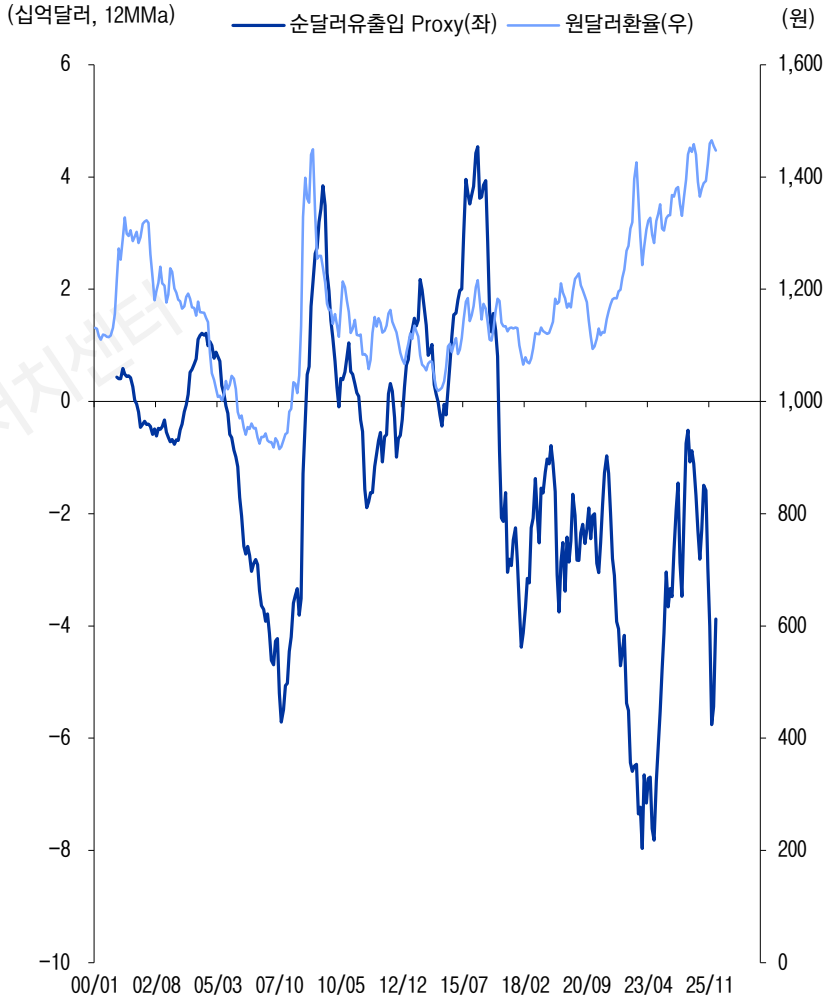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3) 원달러환율 하방 저항 요인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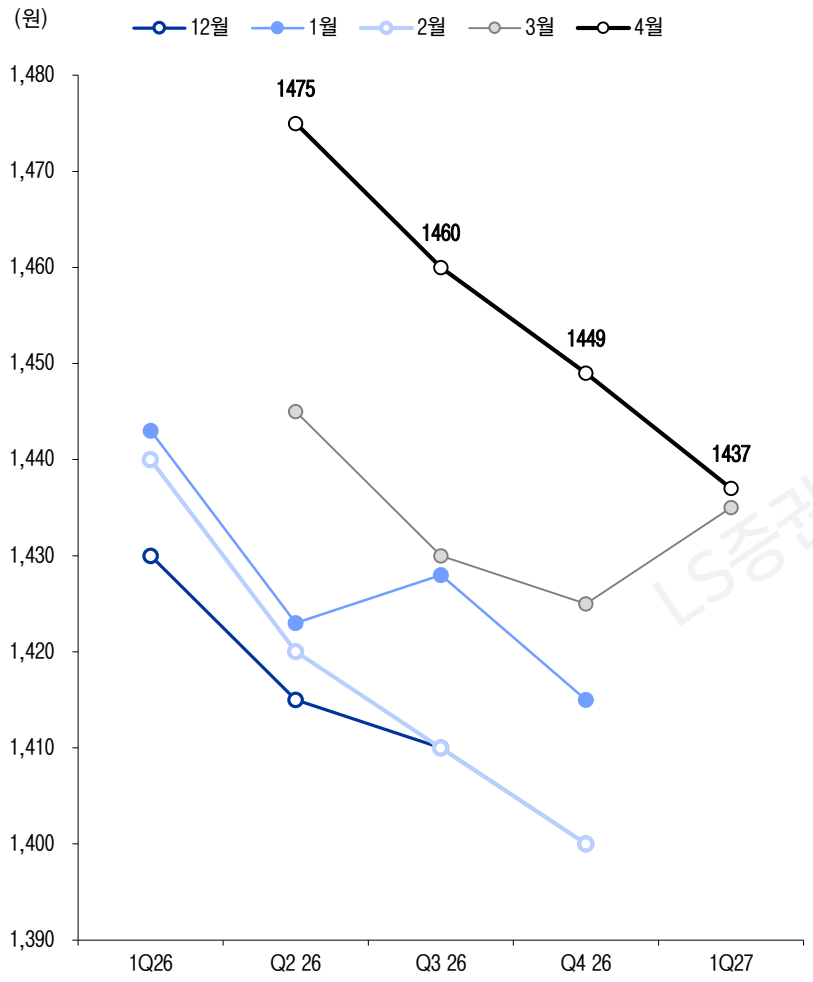
한국의 순달러유출입 Pro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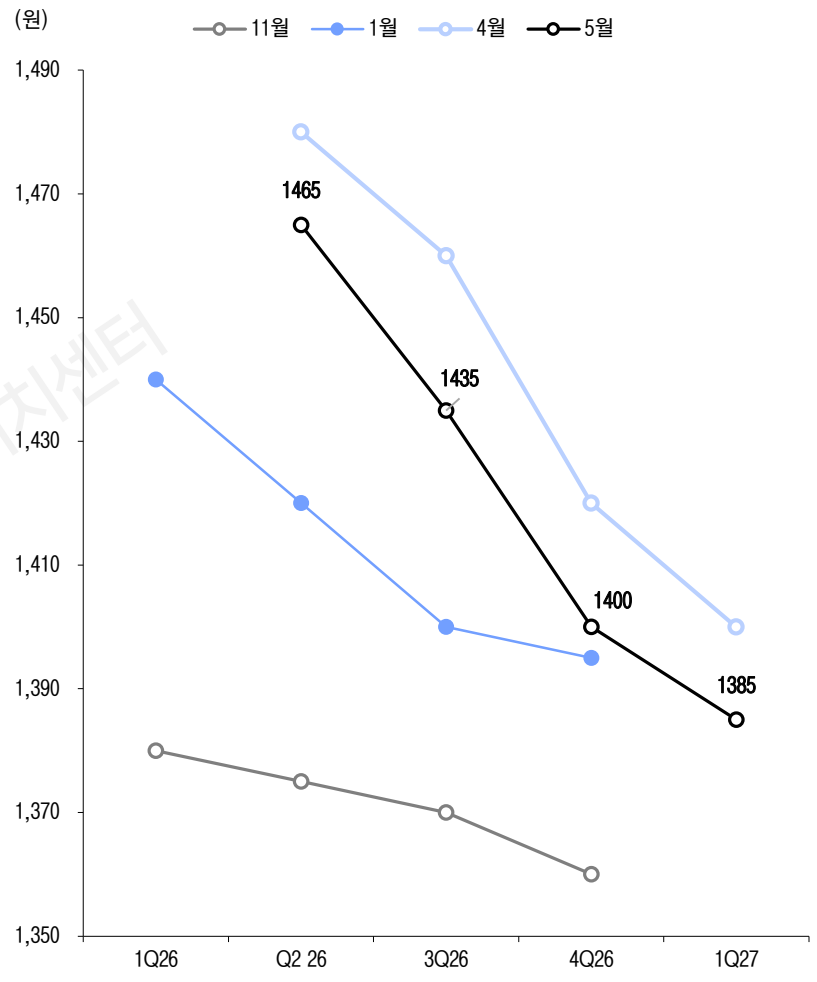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4) 높아진 레벨은 인정. 여전히 방향성은 아래로…

원달러환율 컨센서스 추이



LS증권 추정치 변동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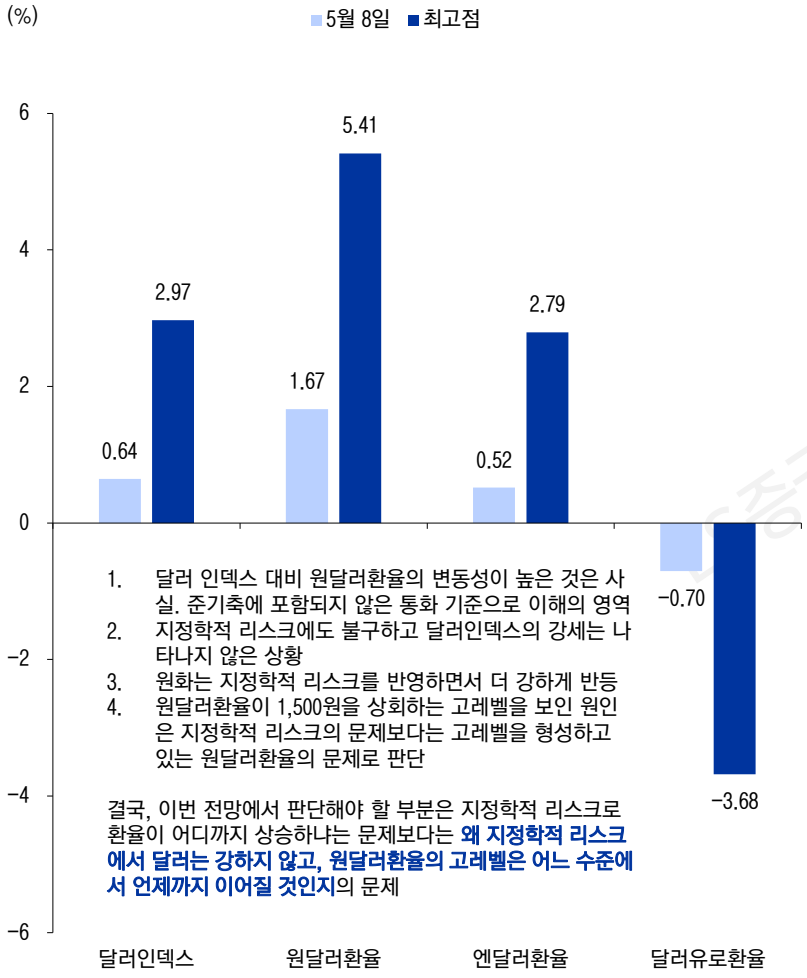
At a Glance

변동성이 아닌 레벨이 문제

- 이란사태,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니다
- 달러의 수급 여건은 오히려 개선 중
- 일시적인 투기심리 확대

이란 사태 이후 주요 통화 변화, 약한 수준의 반영

이란 사태(2월 27일) 이후 주요 통화 변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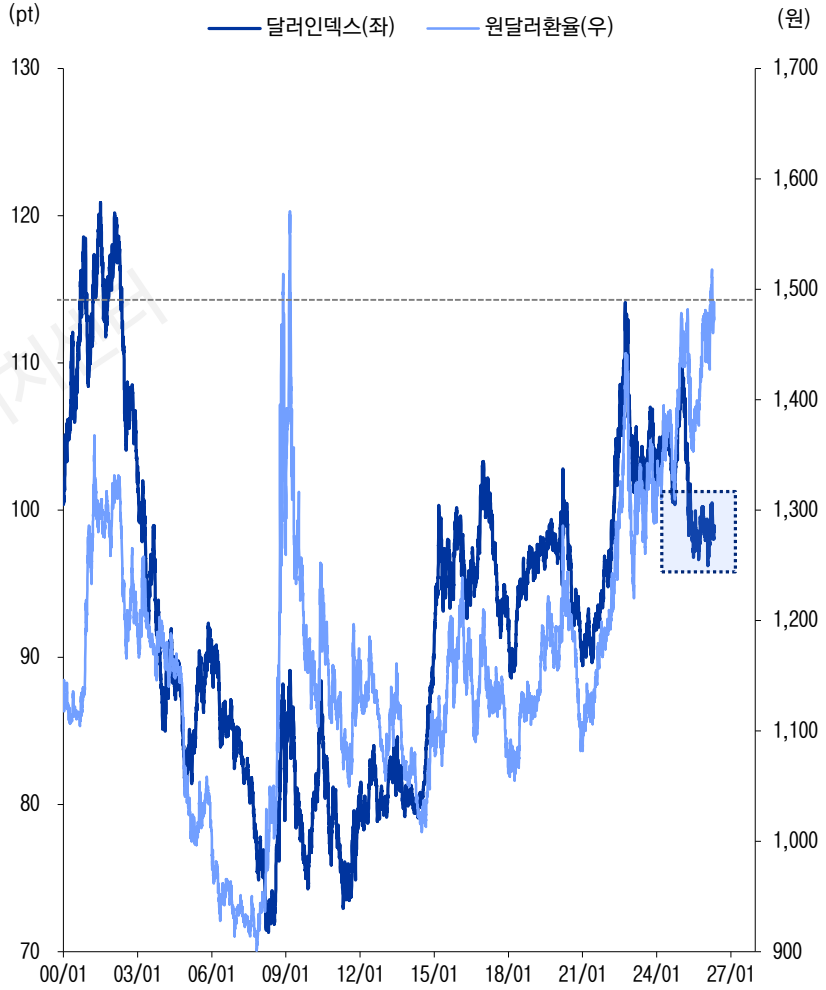


1. 달러 인덱스 대비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 준기축에 포함되지 않은 통화 기준으로 이해의 영역
2.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달러인덱스의 강세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
3. 원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더 강하게 반등
4. 원달러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고레벨을 보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문제보다는 고레벨을 형성하고 있는 원달러환율의 문제로 판단

결국, 이번 전망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이 어디까지 상승하냐는 문제보다는 **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달러는 강하지 않고, 원달러환율의 고레벨은 어느 수준에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의 문제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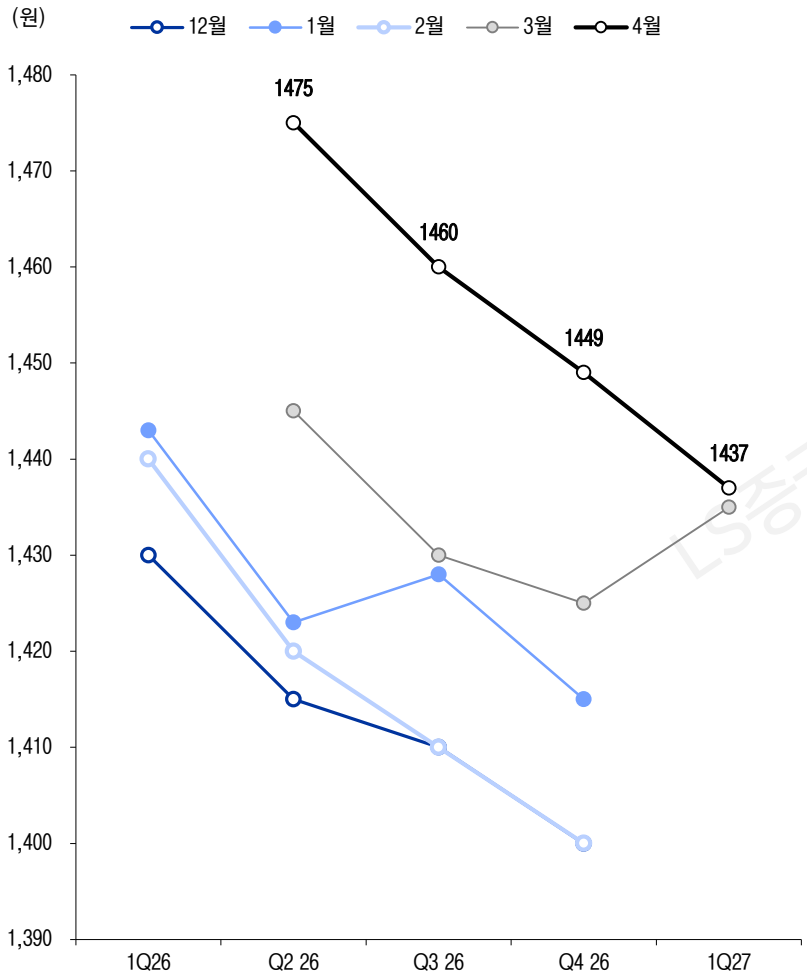
달러인덱스와 원달러환율의 디커플링 발생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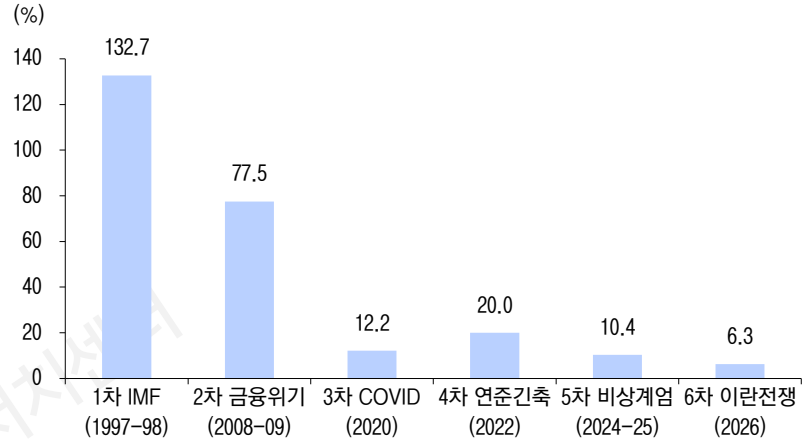
동일한 관점에서 원달러환율의 수치보다 높아진 레벨에 관심

원달러환율 전망 컨센서스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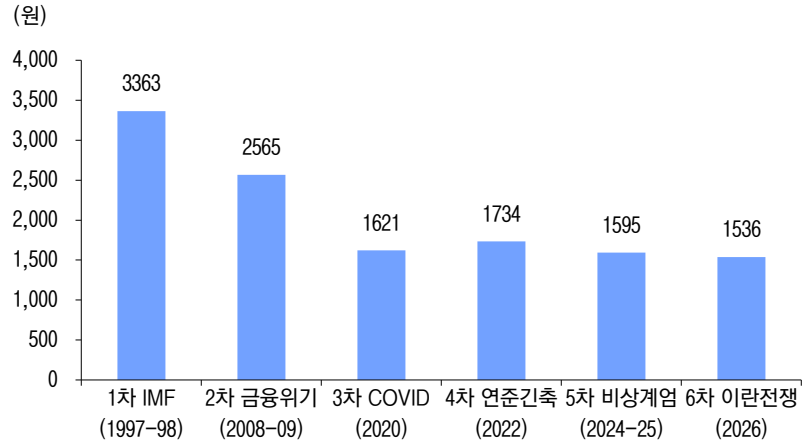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환율 급등시기 절하율



환율 저점(1,445원 기준) 대비 절하율 적용 환율



LS증권 리서치센터

외화거래시장에서의 달러 부족은 없었다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

스왑베이시스

스왑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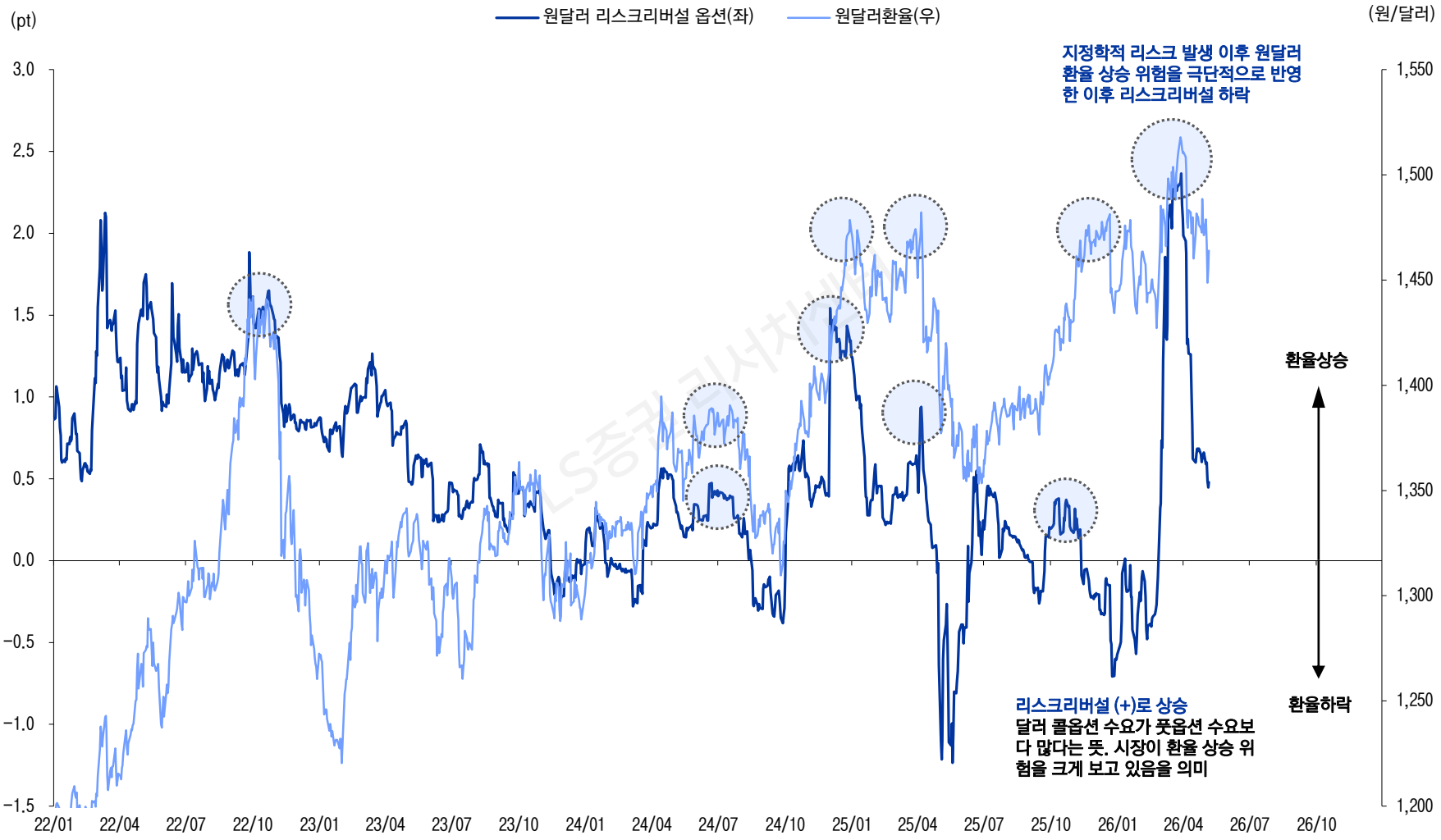
스왑베이시스:
스왑베이시스 (-): 달러 부족현상, 폭이 커지는 경우, 한미 금리차로 설명되지 않는 달러 부족 심화

스왑포인트: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 선물환율이 이론가보다 높다면 시장은 환율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중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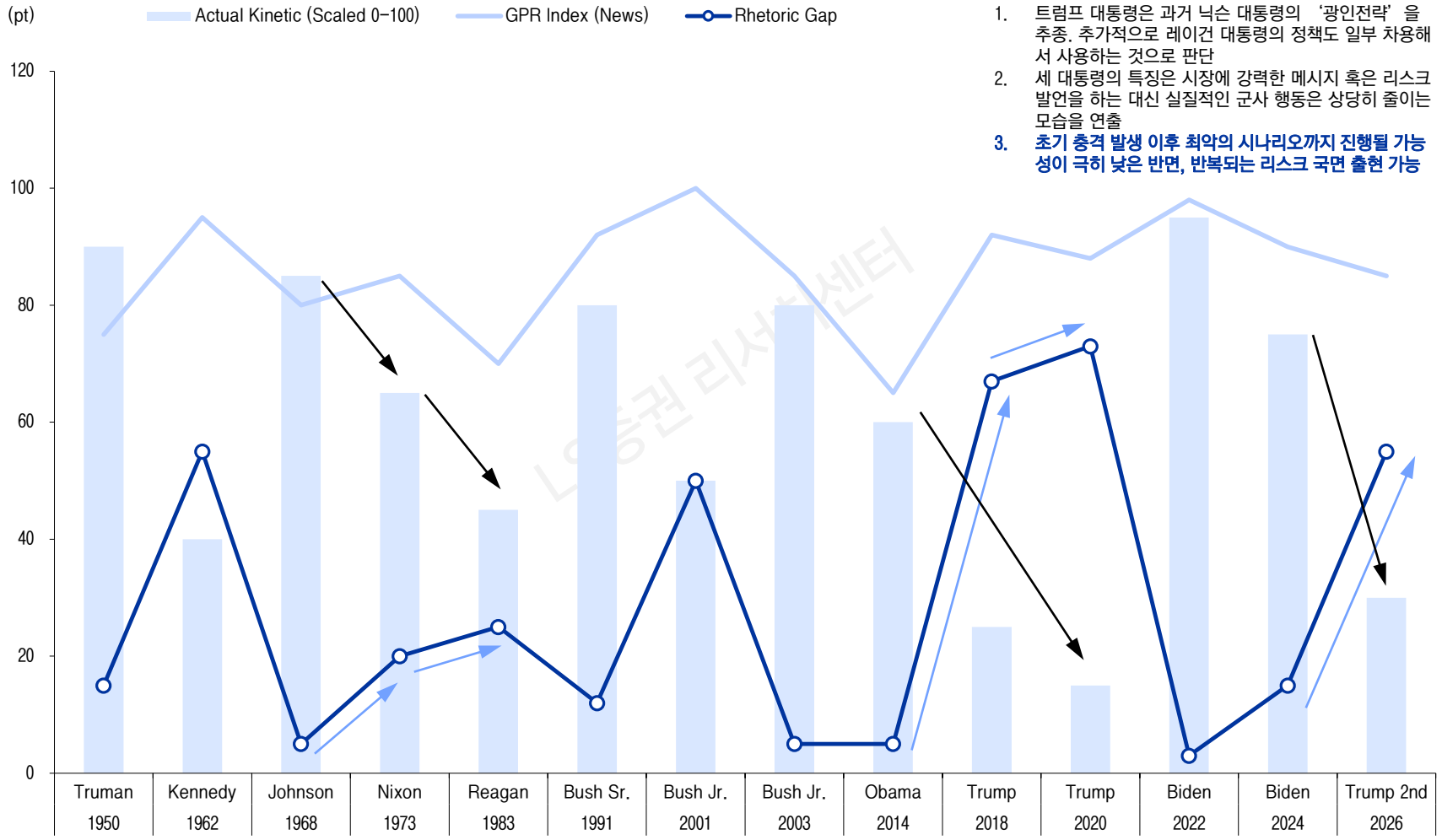
원달러 리스크리버설 옵션과 원달러환율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실질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완화를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어



1.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닉슨 대통령의 '광인전략'을 추종. 추가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도 일부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2. 세 대통령의 특징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 혹은 리스크 발언을 하는 대신 실질적인 군사 행동은 상당히 줄이는 모습을 연출
3. **초기 충격 발생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반복되는 리스크 국면 출현 가능**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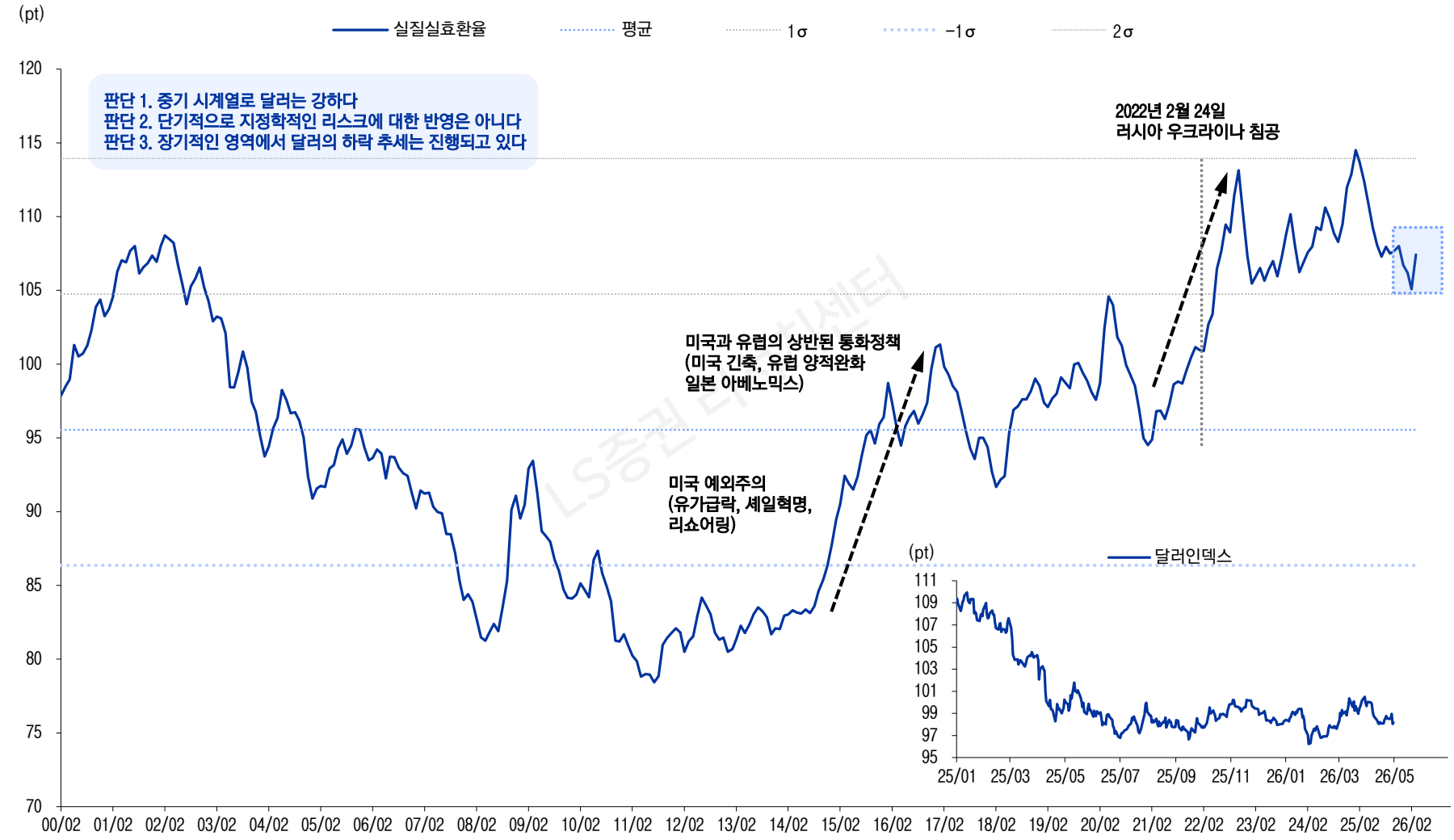
TINA, 대안이 없다

- 과도한 성장 기대감과 하락 신호를 보이는 펀더멘탈
- 달러의 내재가치는 지속적으로 약화
- 달러는 싫지만 다른 것은 더 싫다

Part Ⅱ-1 달러인덱스 펀더멘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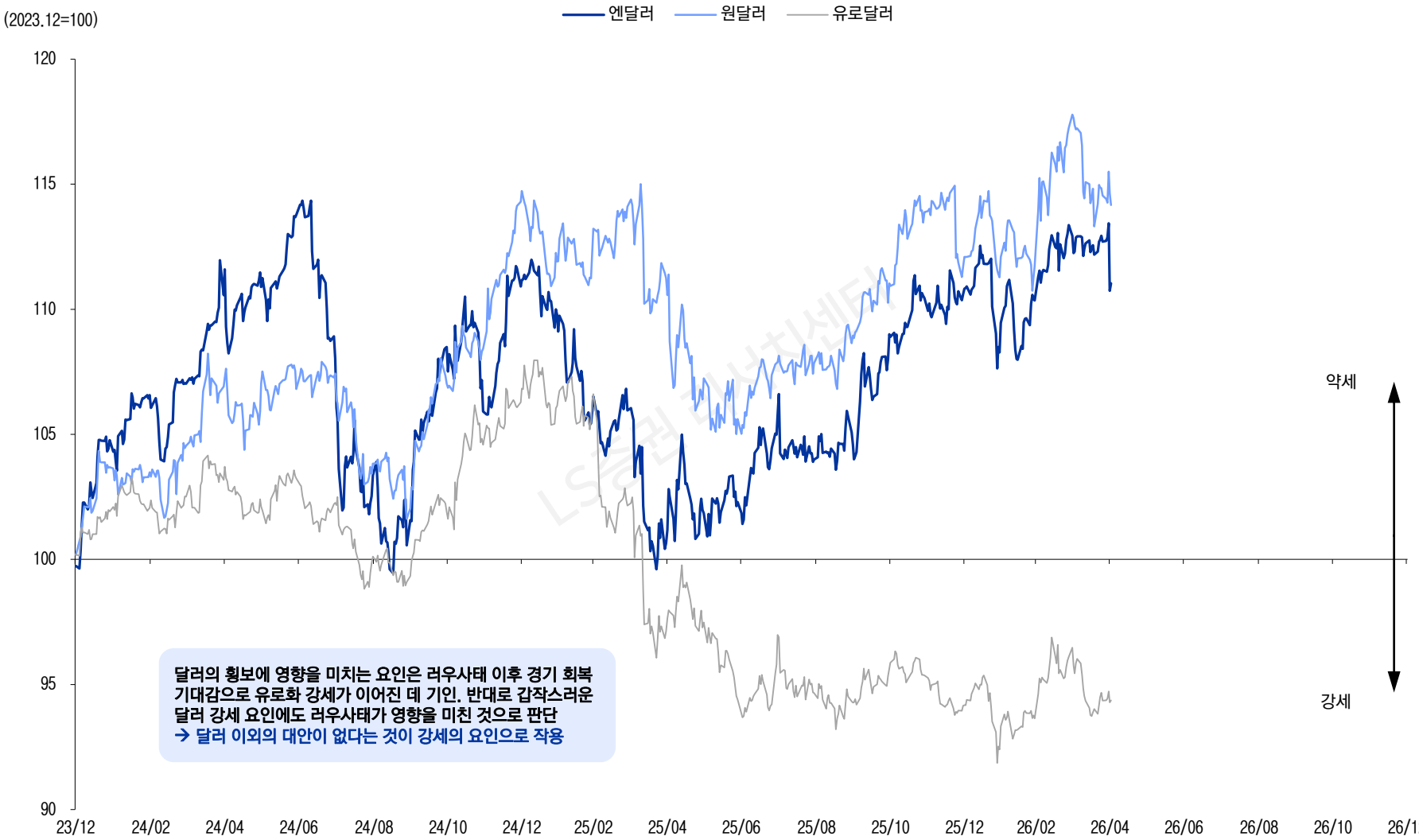
낮아지는 경기체력
과도한 기대와 고금리, 고물가 리스크

달러 실질실효환율 추이. 고레벨 영역에서 횡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인덱스 대비 주요통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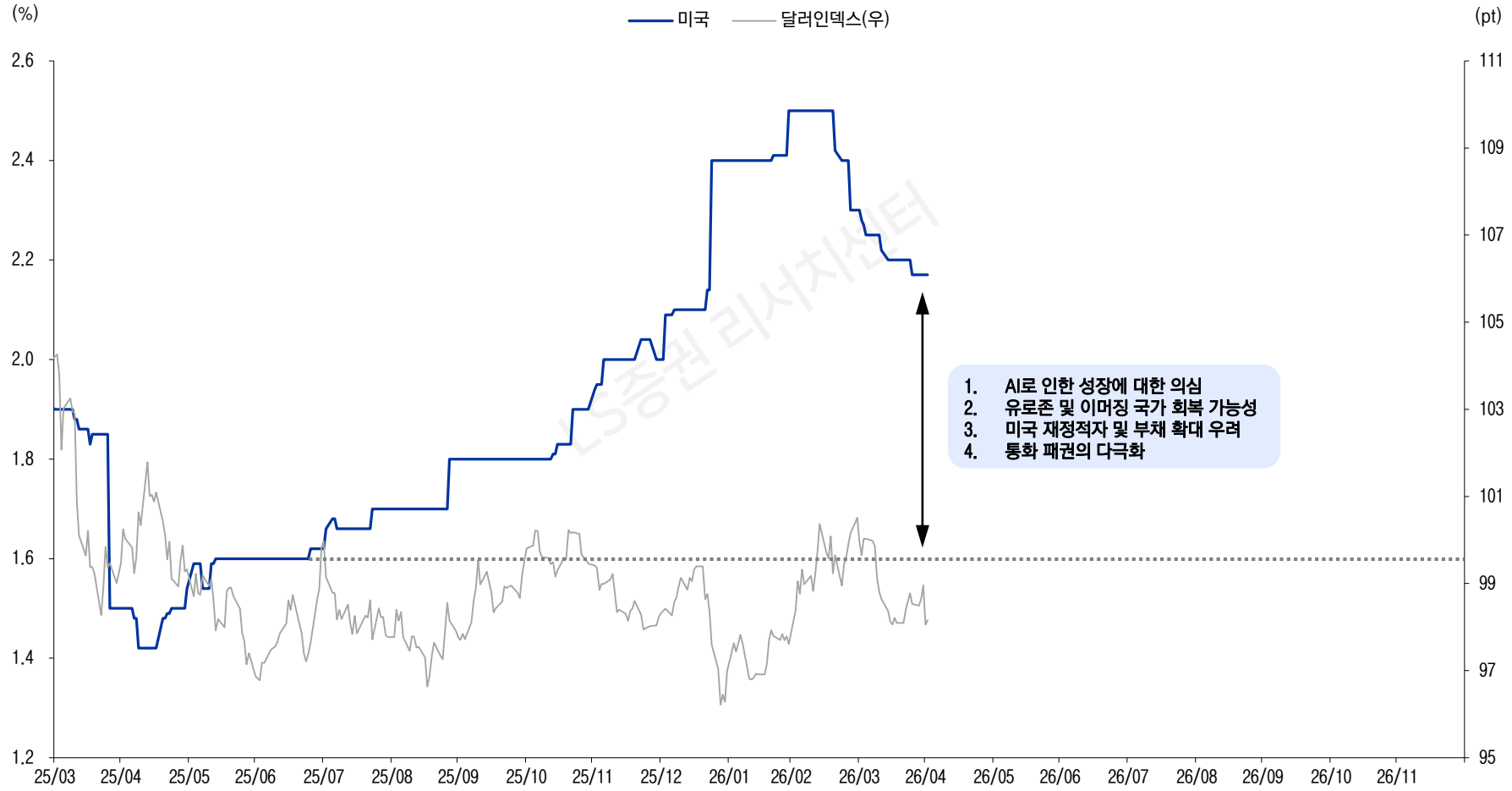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경제성장 전망과 달러 강도 사이의 괴리

달러의 패권 약화? 단순히 달러의 패권 약화만으로는 현재의 괴리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진 것으로 판단하는데 미국 경제성장 전망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과 달러 우선주의의 후퇴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

2026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컨센서스와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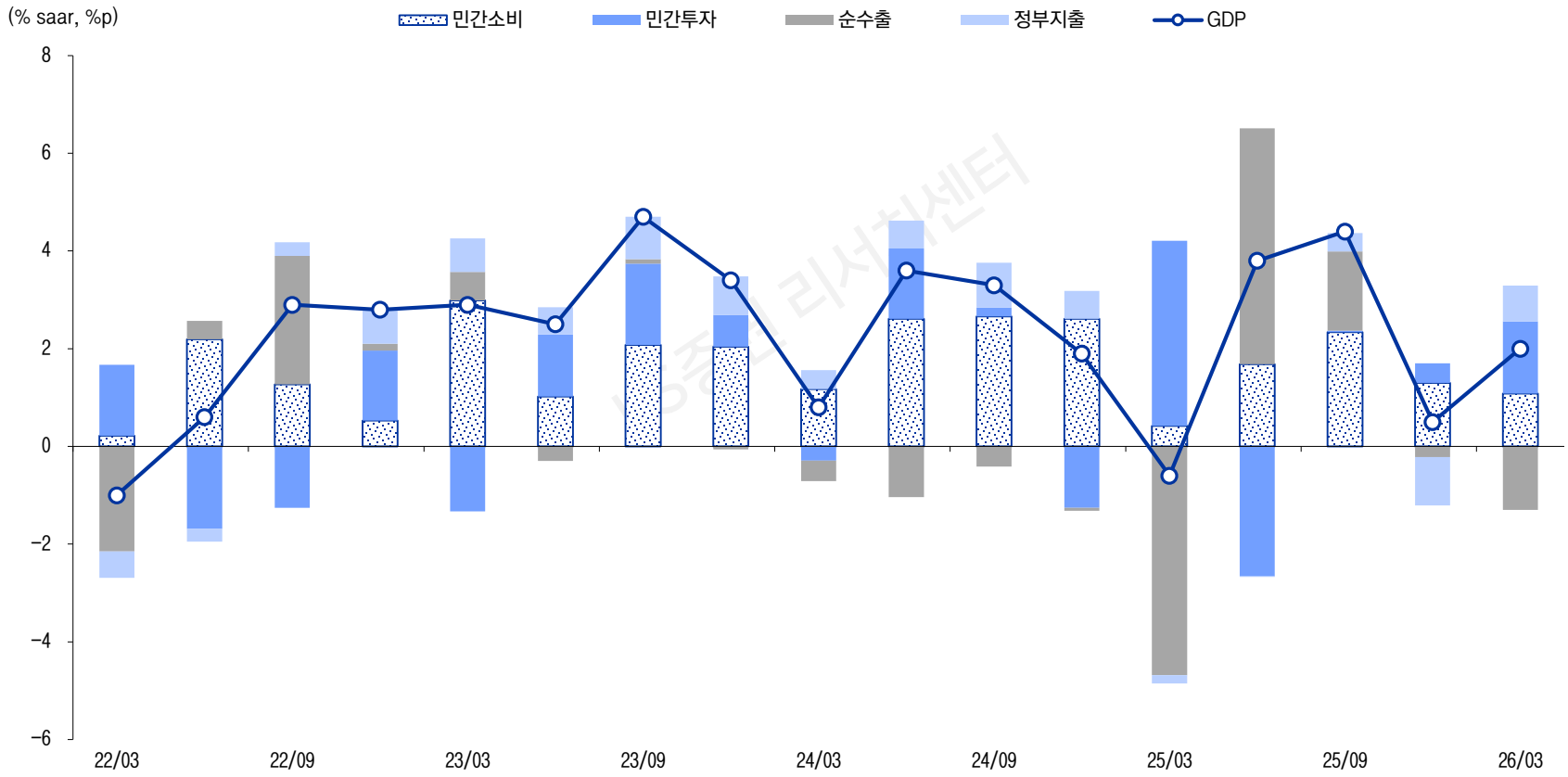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낮아지는 민간소비 기여도와 높아진 민간투자 기여도

성장지속성 훼손? 미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하락 중. 순수출 기여도 역시 2025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민간투자 기여도가 기대와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 성장은 기대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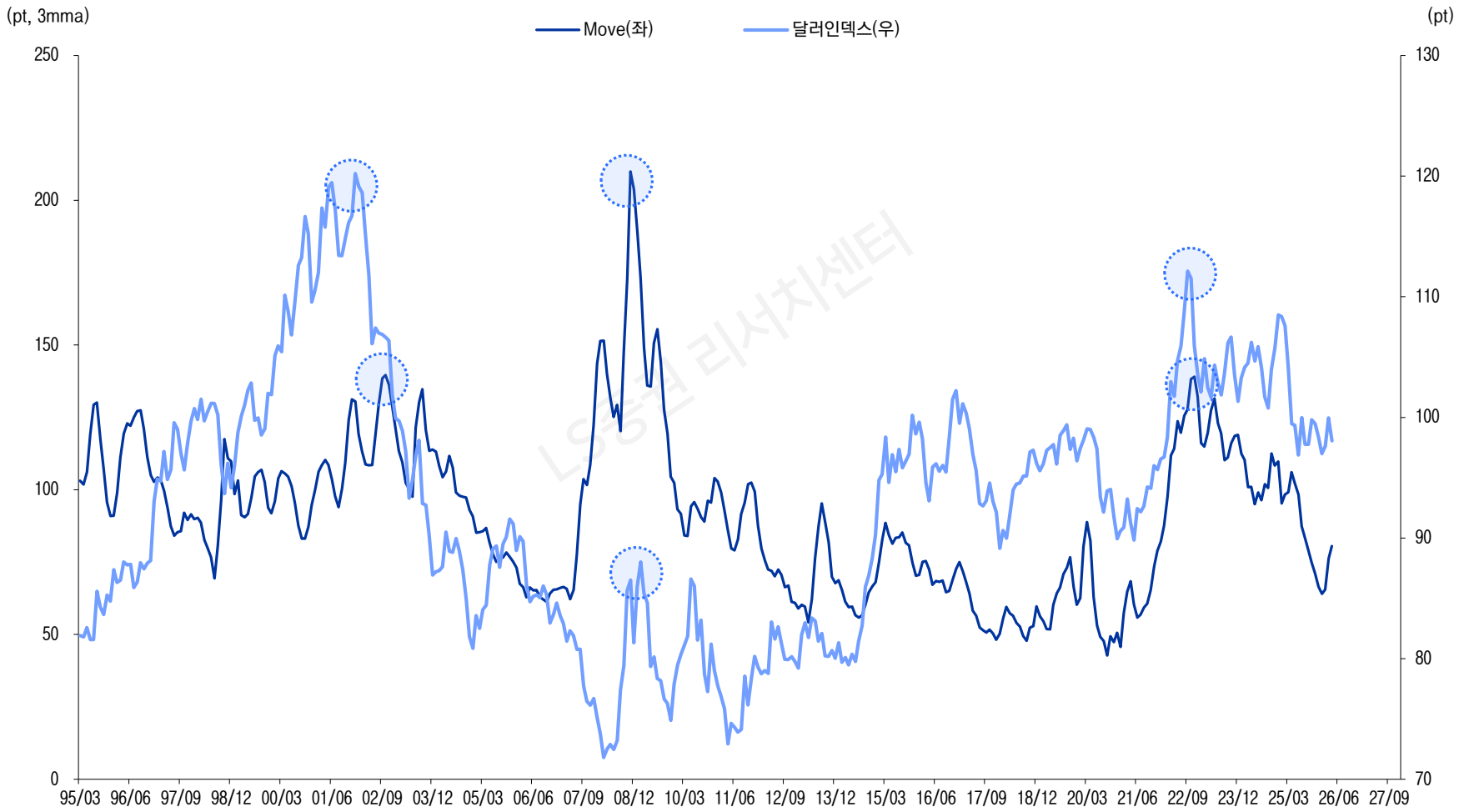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변동성은 하락 추세를 유지

미국 채권시장 변동성과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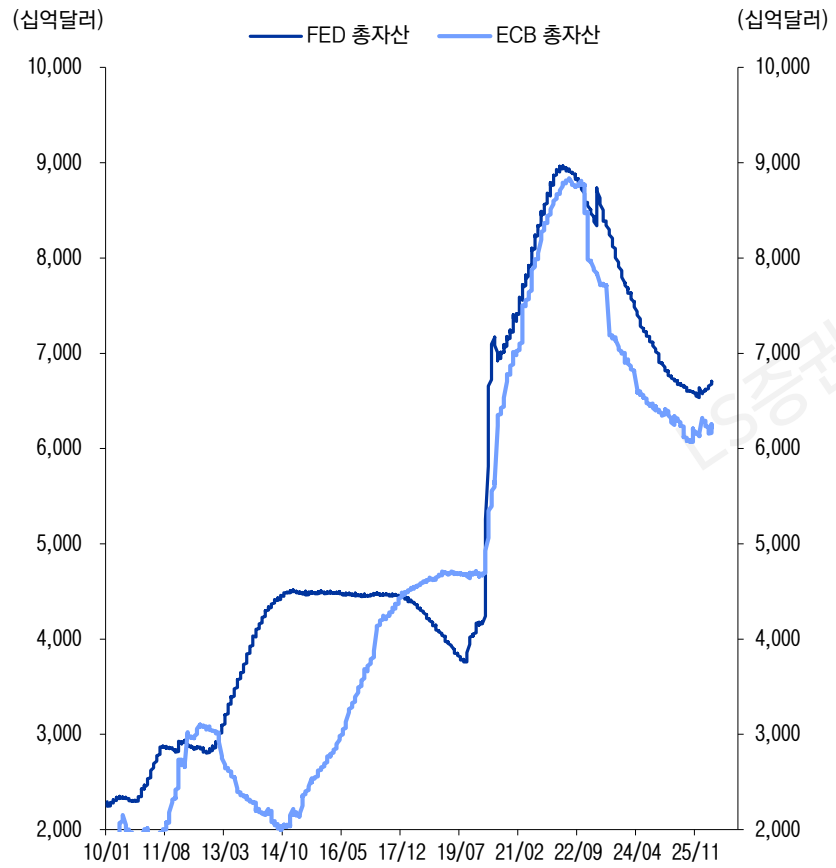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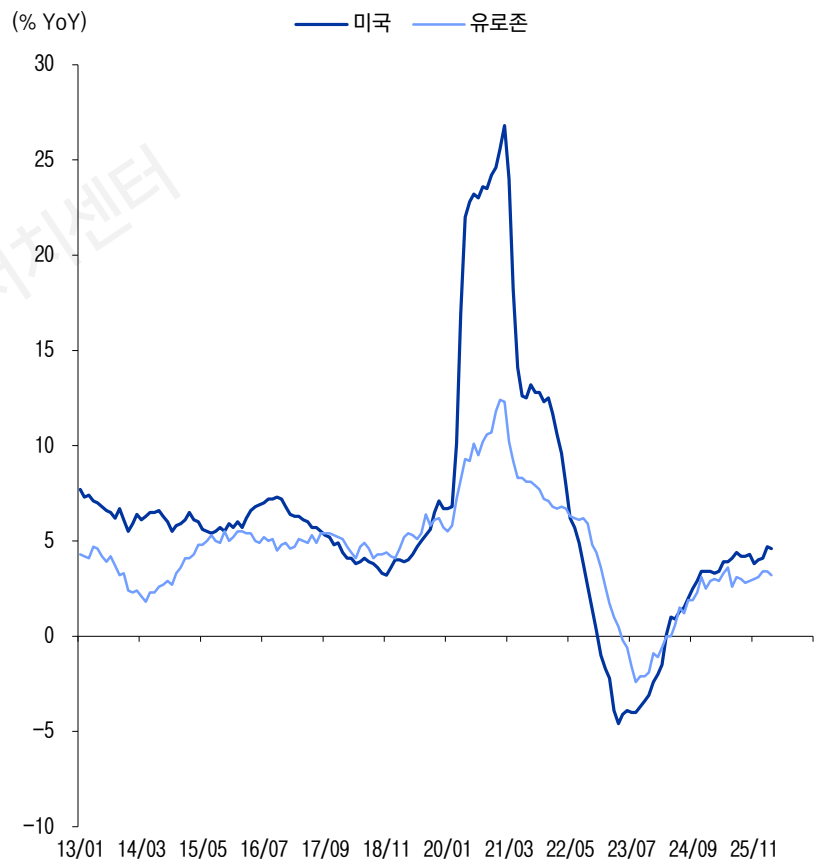
유동성 측면에서 유로존과 미국 비교, 유로화 소폭 우세

QT는 미국만 하나? FED와 ECB의 총자산 변화 측면에서 ECB의 자산 축소 속도가 미국을 우세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M2증가율 측면에서도 미국이 유로존보다 통화량의 증가가 소폭 빠른 것으로 판단. 정책적 방향성으로 판단할 때 미국 자산 감소 확대, M2증가율 상승 가능

미국과 유로존 중앙은행 자산 변화



미국과 유로존 M2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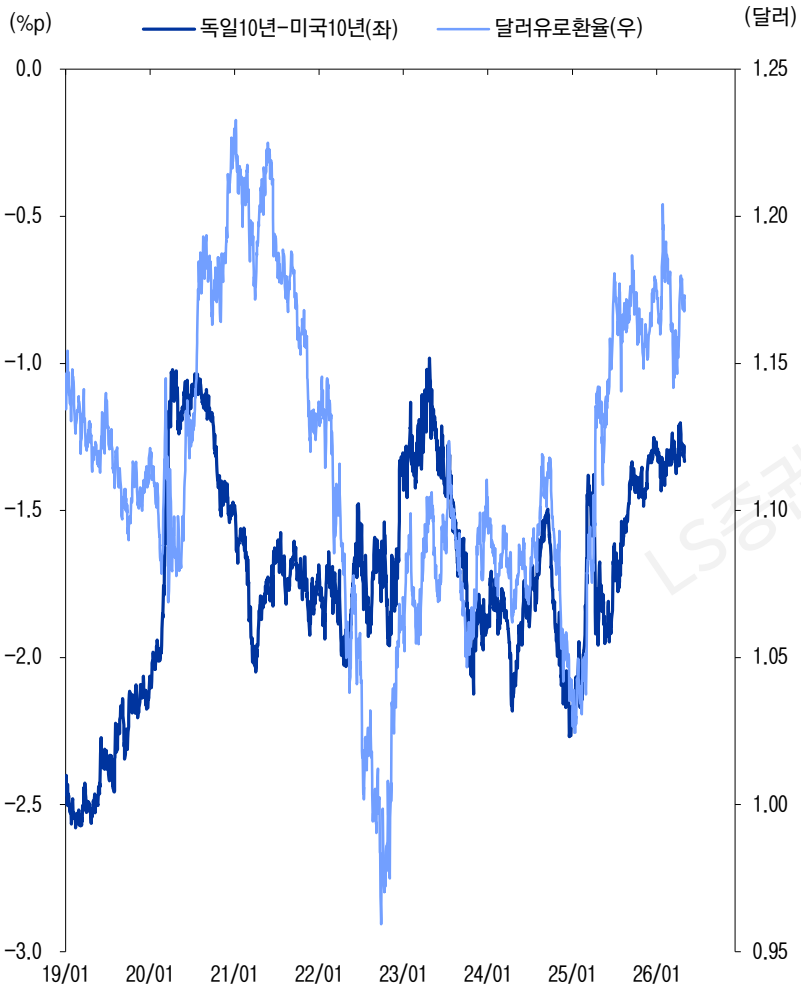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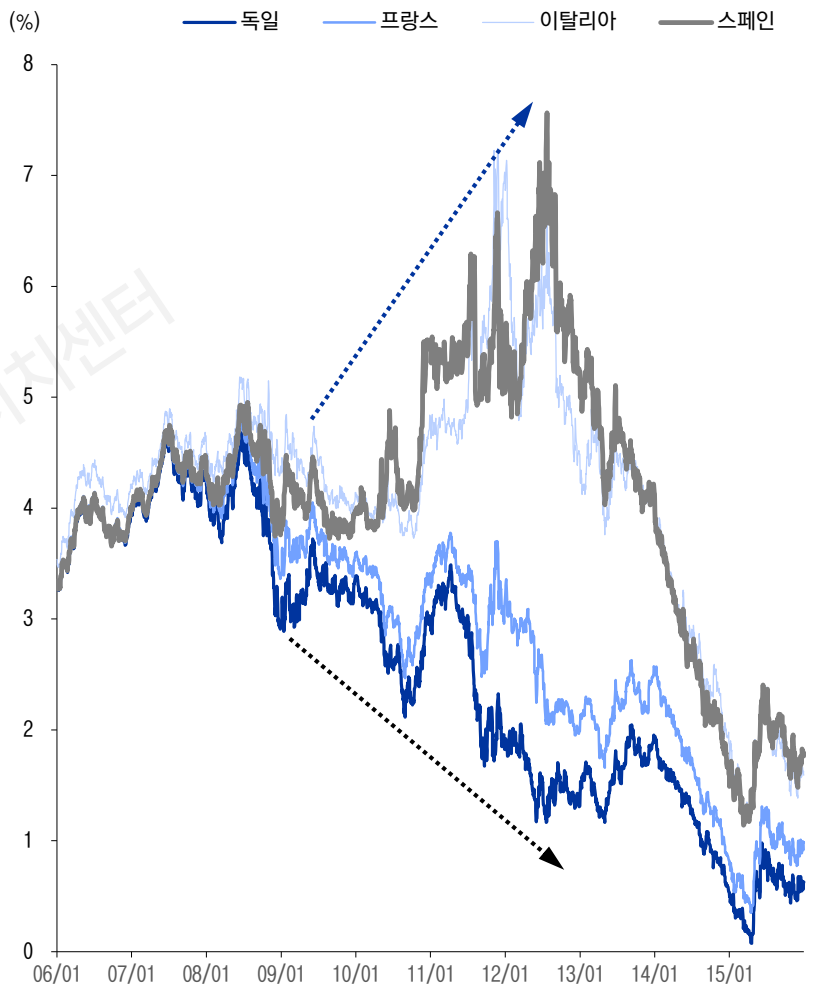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독일/미국 내외금리차와 달러유로환율

독일-미국 금리차와 달러유로환율



PIIGS사태 이후 유로존 주요국 10년 국채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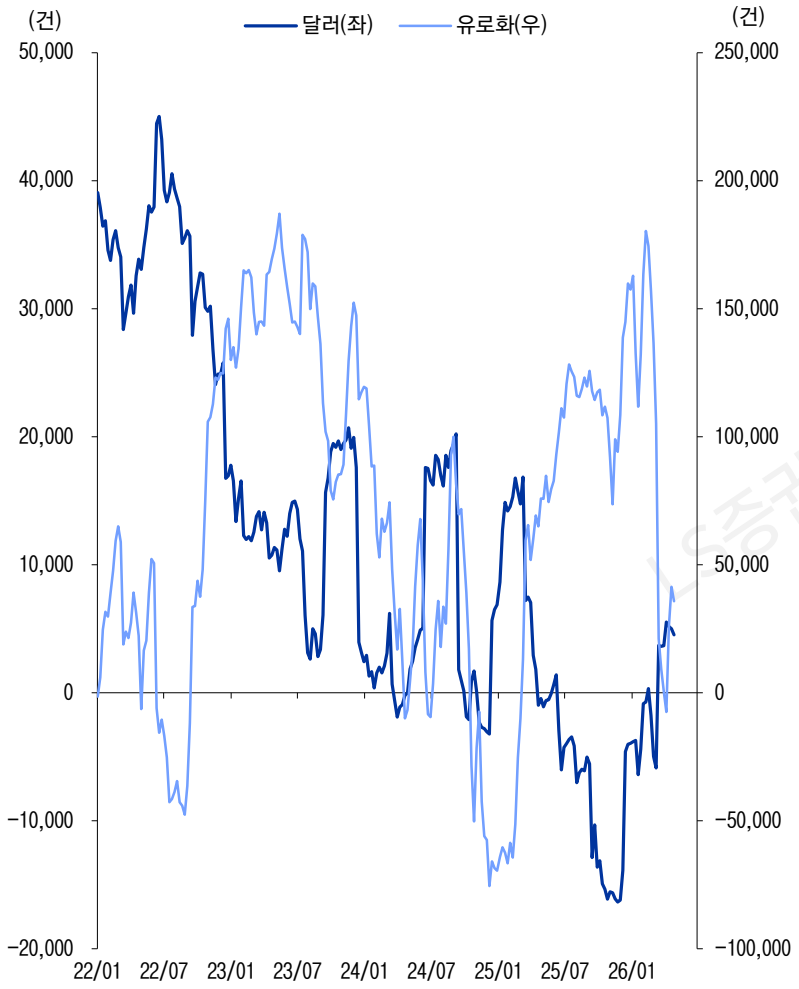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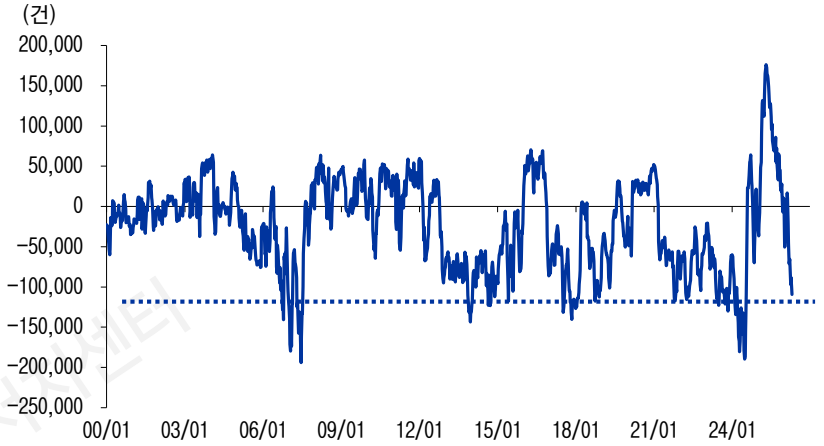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투기적 포지션 상승. 엔화 투기적 포지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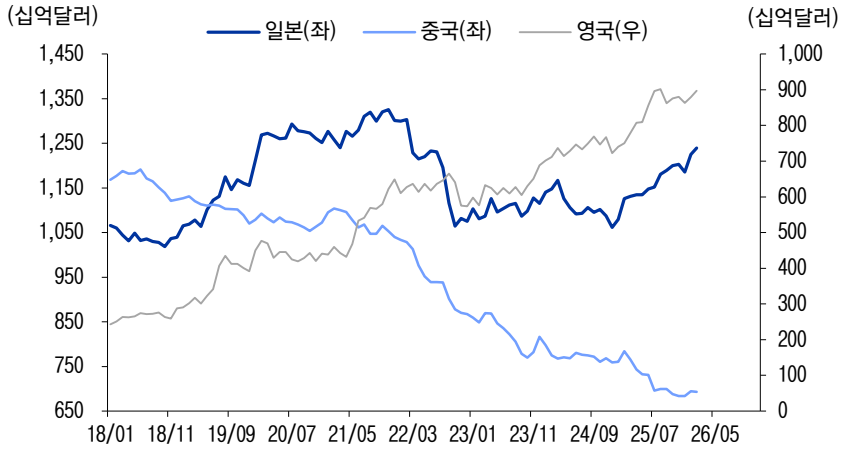
달러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증가



엔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감소



미 국채 매수 금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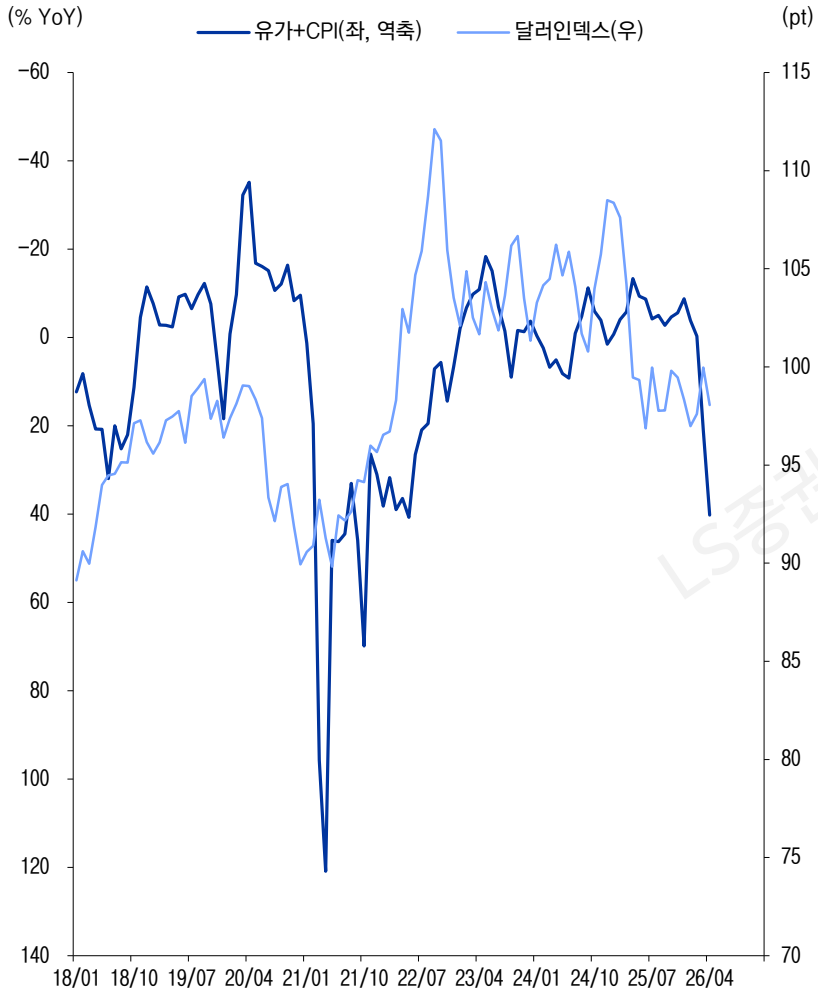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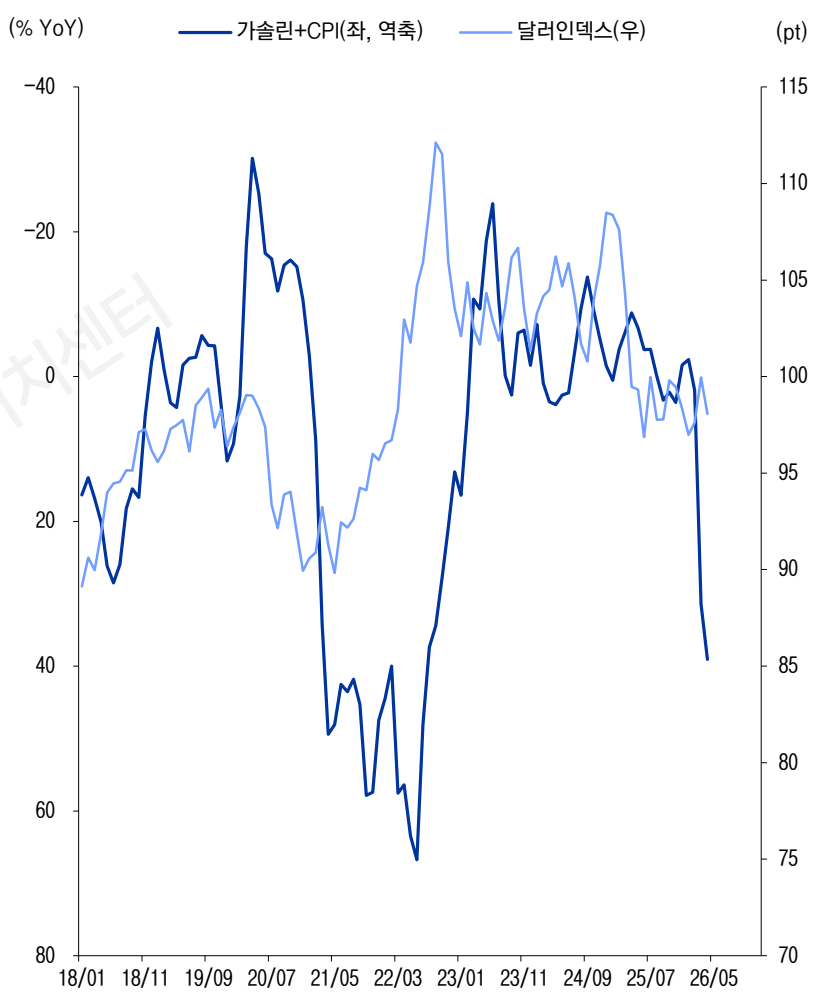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이란사태는 본질적으로 달러의 하방 요인

물가 요인과 달러인덱스 추이



가솔린가격과 물가로 환산한 달러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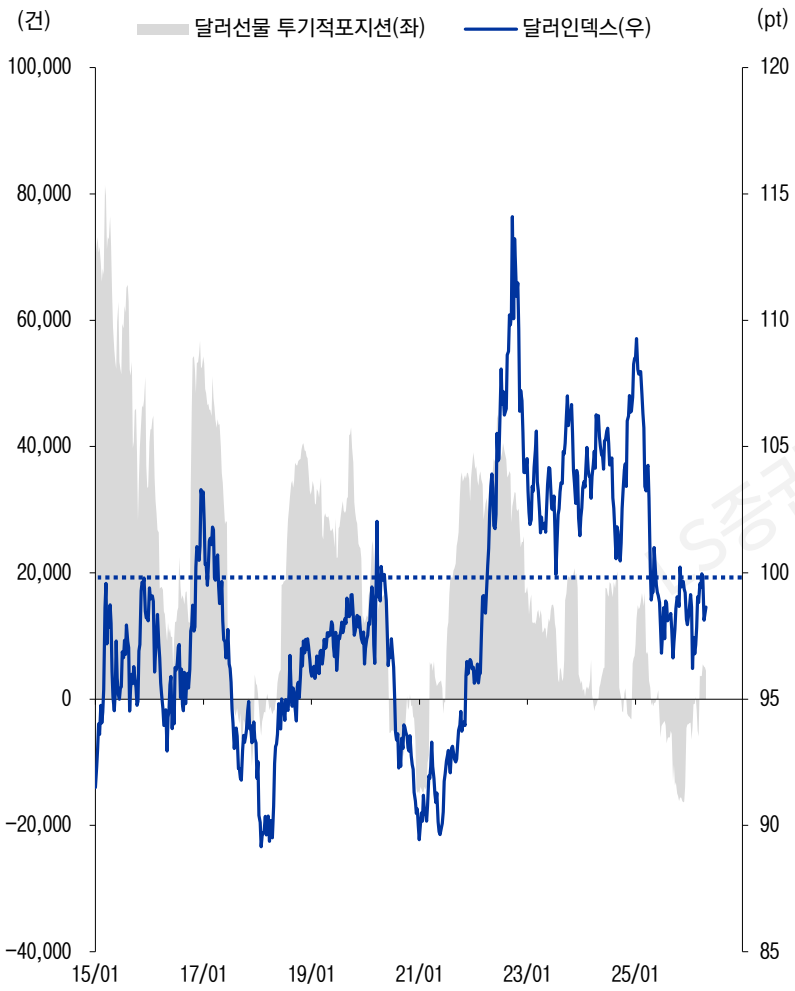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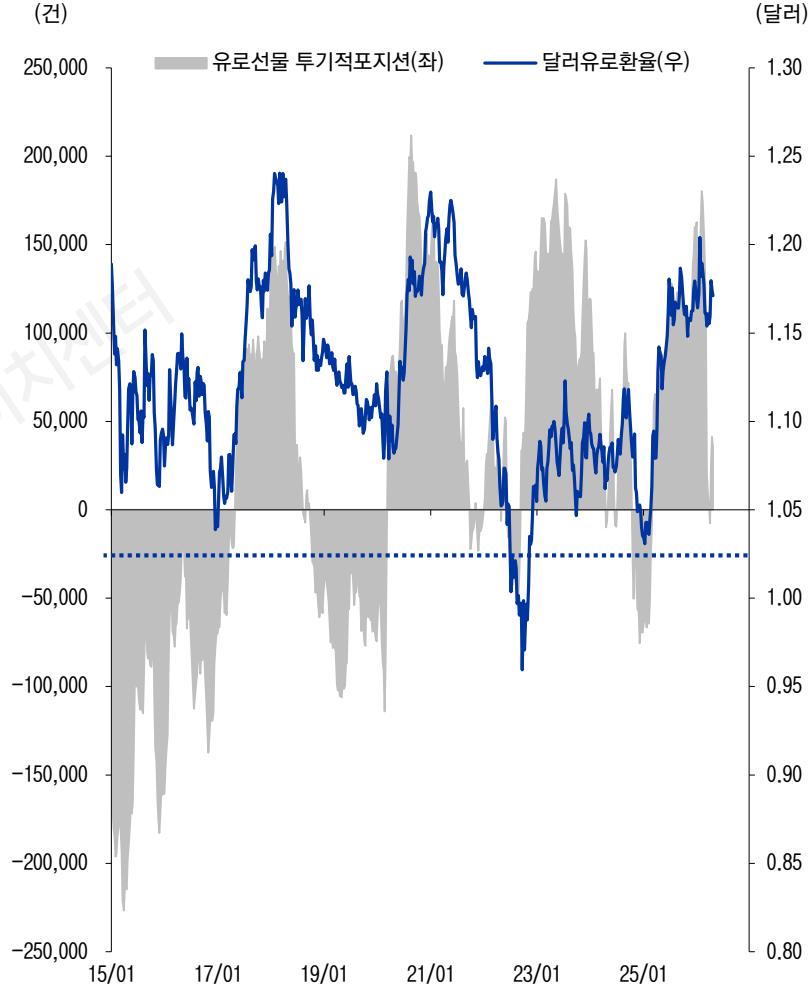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와 유로화 투기적 포지션

달러선물 투기적포지션과 달러인덱스



유로선물 투기적포지션과 달러유로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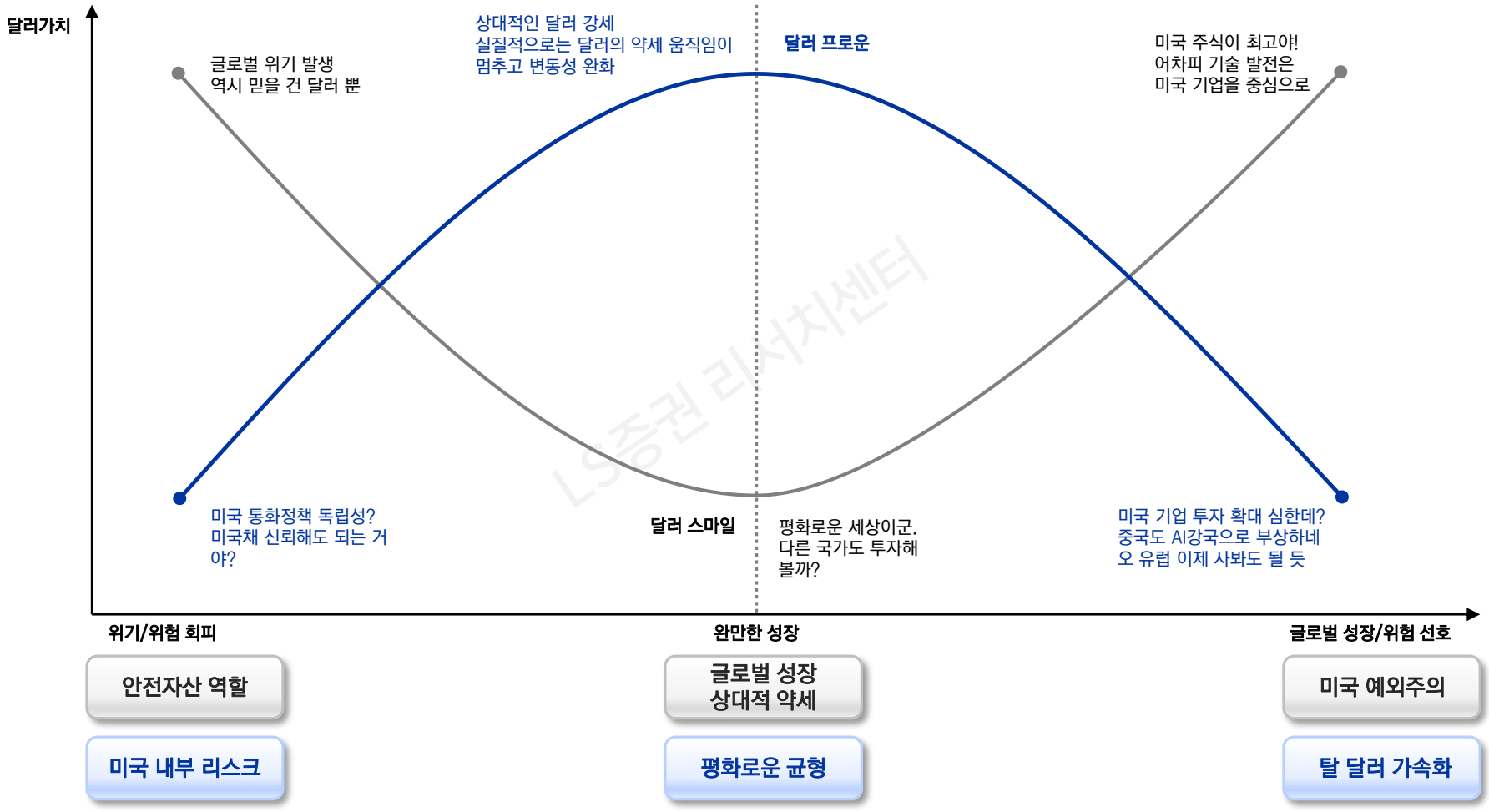
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Ⅱ-2 달러스마일 시대의 종료

TINA, 대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달러

달러 스마일(Smile) vs 달러 프로운(F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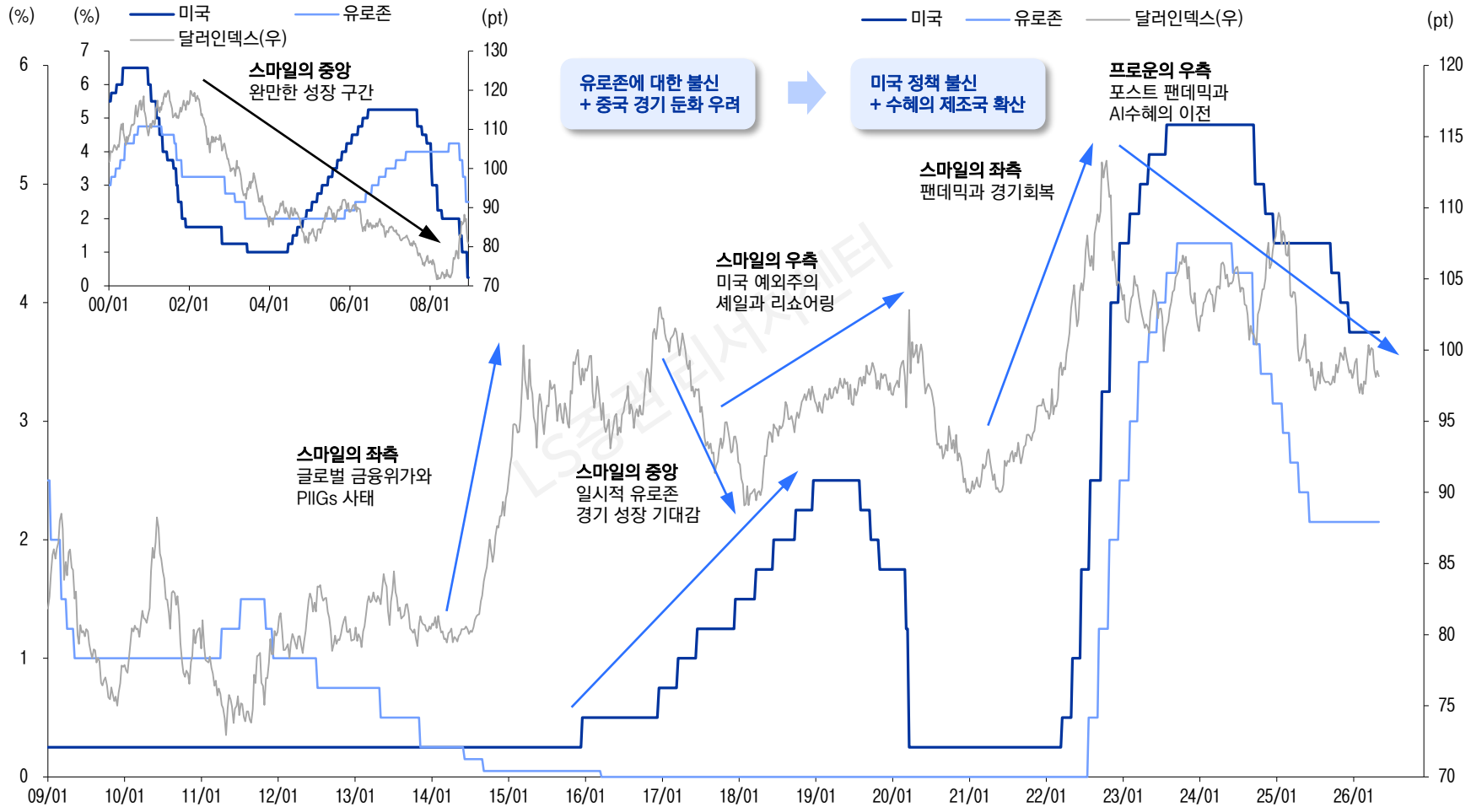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차와 구간에 대한 상황 판단

금리차 축소 기대감 하락에도 달러 강세는 제한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담보가치를 상실하는 달러

Again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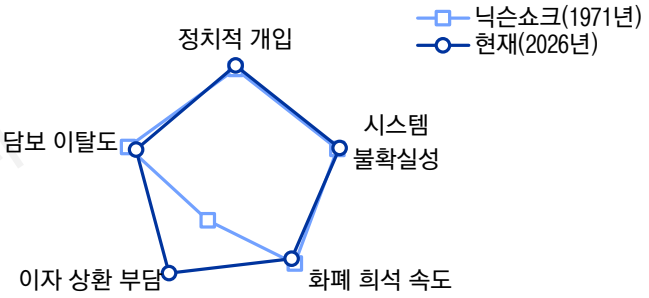
- QE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에 의한 호재로 해석되지만 달러 혹은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부채의 지속적인 공급 요인
- 과거 이와 유사하게 지나친 유동성 공급이 문제를 만들었던 시기는 닉슨 대통령 시기. M2의 증가가 금태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신용을 담보로 한 미국 화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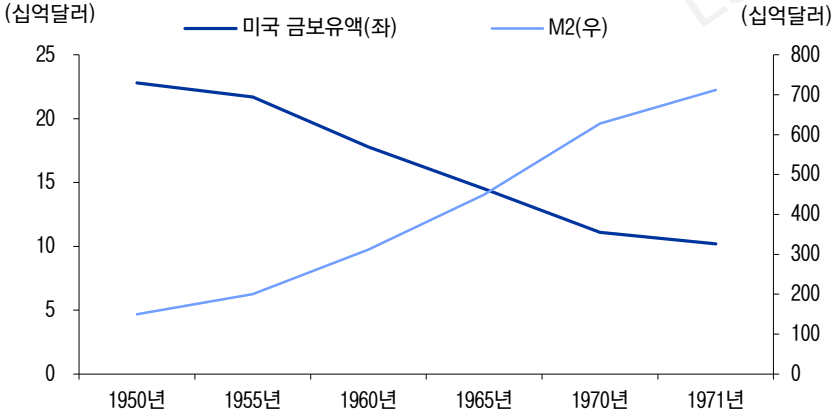
- 특정 담보가 없는 국채의 발행은 결국 미국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 통화량 증가
- 버는 돈으로 이자를 내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신용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결국 내재적인 통화의 가치는 통화량의 증가를 따라서 하락

지나친 화폐 발행이 화폐 내재 가치를 빠르게 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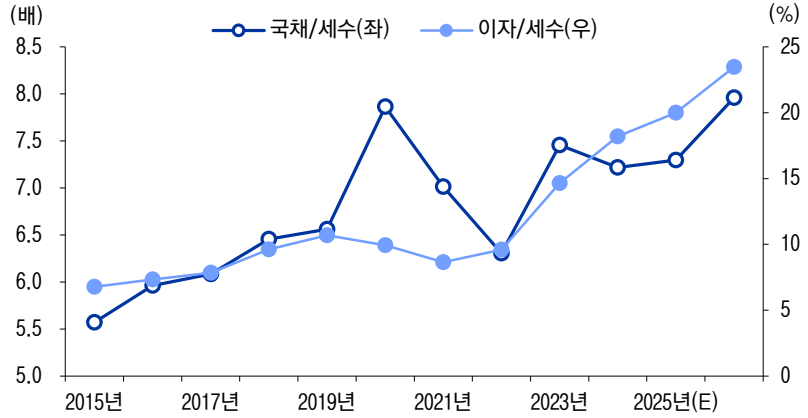
구분	1971년 닉슨 쇼크	2026년
누적되는 문제	금태환	국채 원금 상환
원인	금 보유량 고갈	재정 적자 및 만기
해결책	부동환율제 전환	초장기/영구채 도입



금태환 중지 이전 미국 금보유액과 통화량



미국 국채 이자와 세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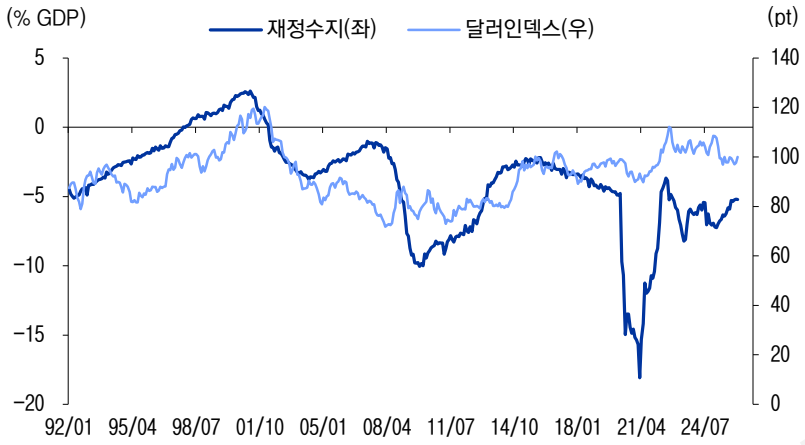


자료: FRED, CBO,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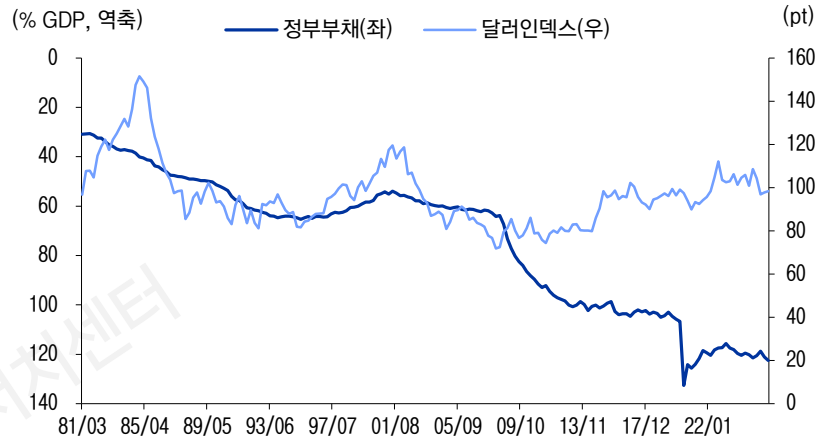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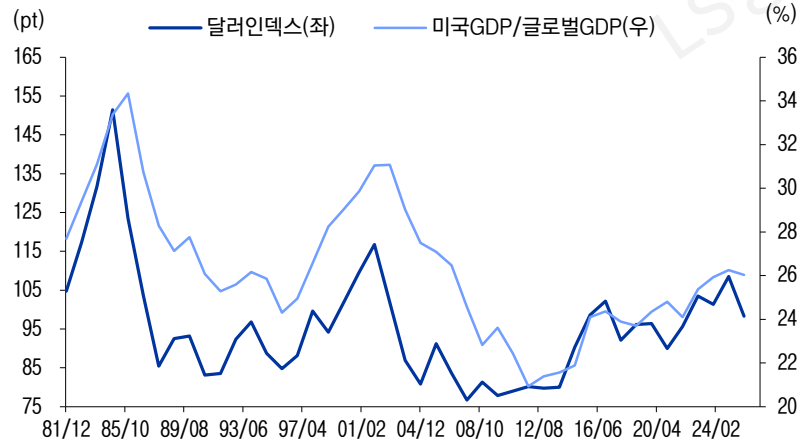
미국 재정수지와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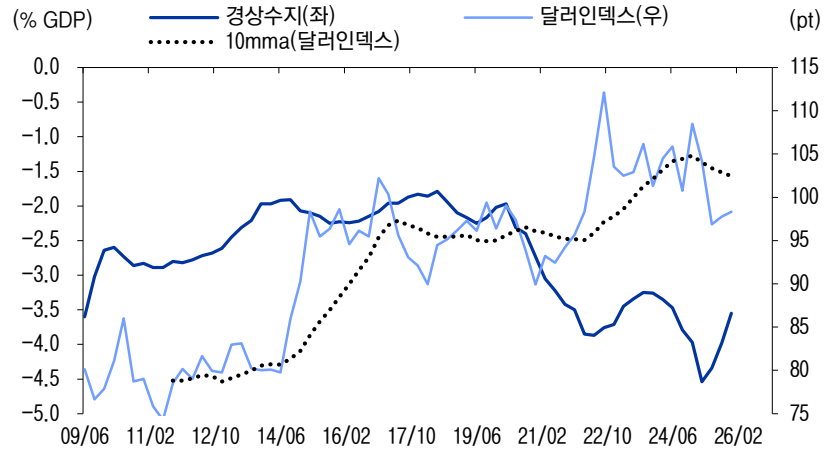
미국 정부부채와 달러인덱스



미국 경제의 글로벌 비중과 달러인덱스



미국 경상수지와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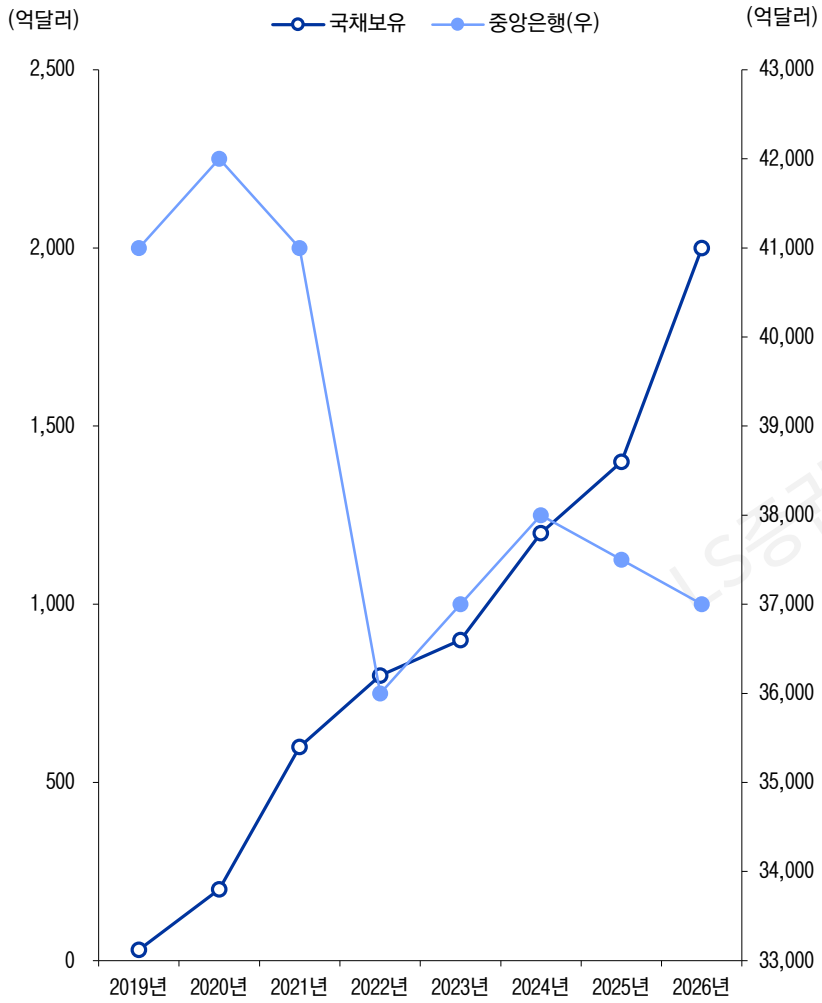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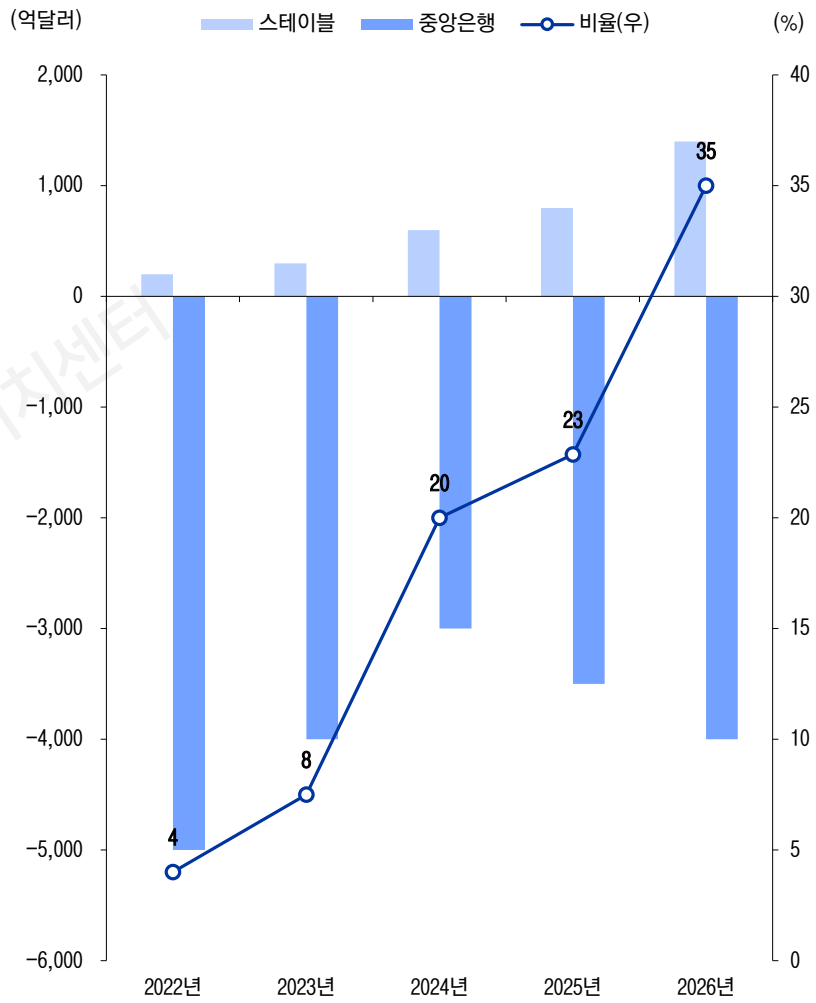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새로운 국채 매수자의 등장.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국채보유액과 중앙은행 국채보유액



2022년 이후 누적 발행액과 중앙은행 달러 보유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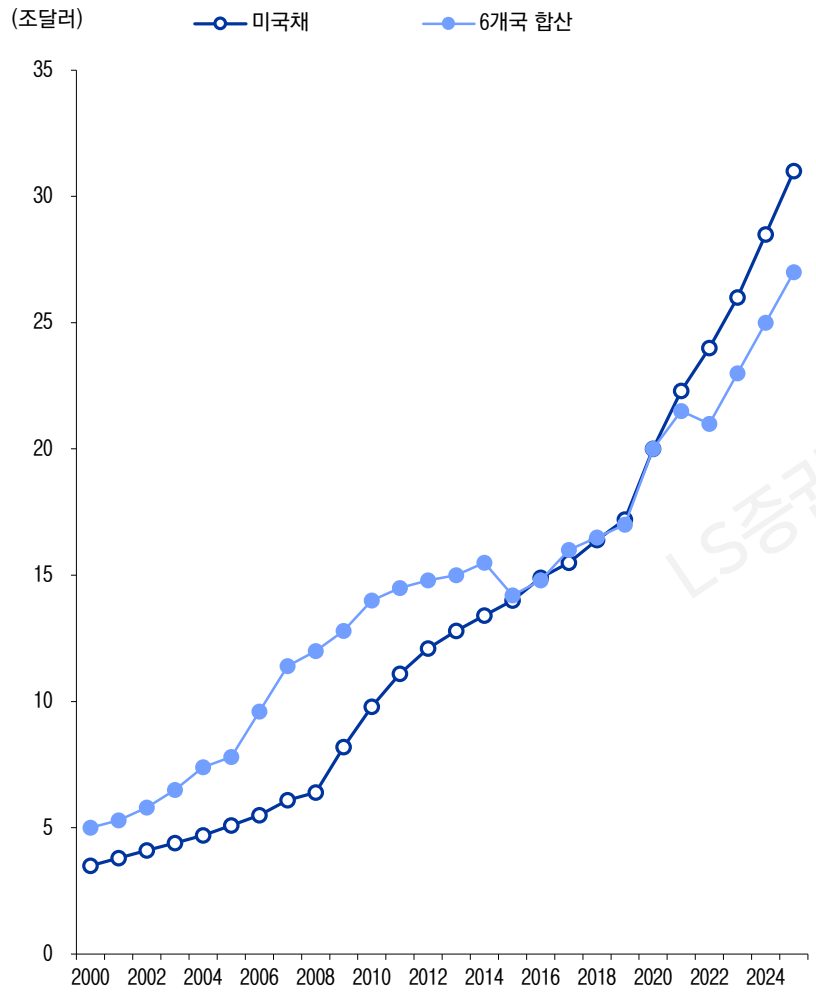


자료: Tether, Circle, FSB, Bloomberg, IMF,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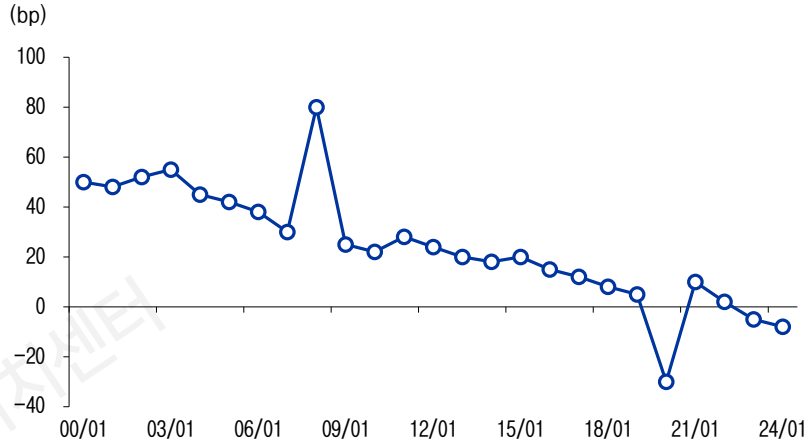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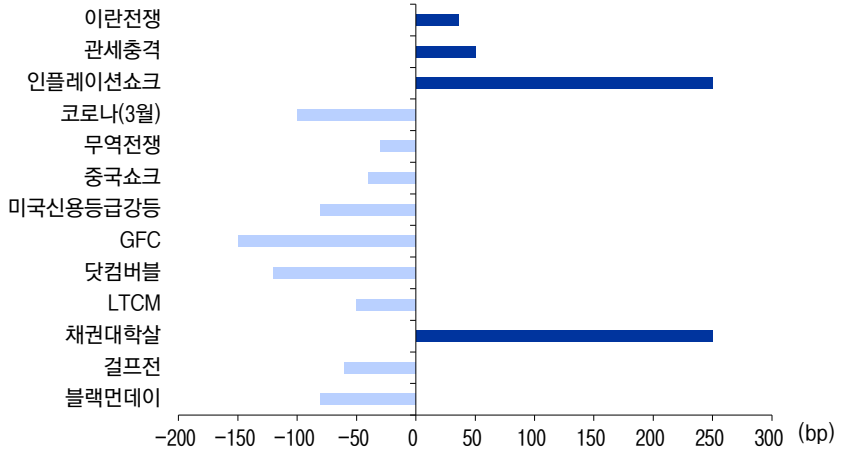
미국채 증가와 주요국과의 비교



미국채 편의수익률 추이



최근 지속되는 위기구간에서의 미국채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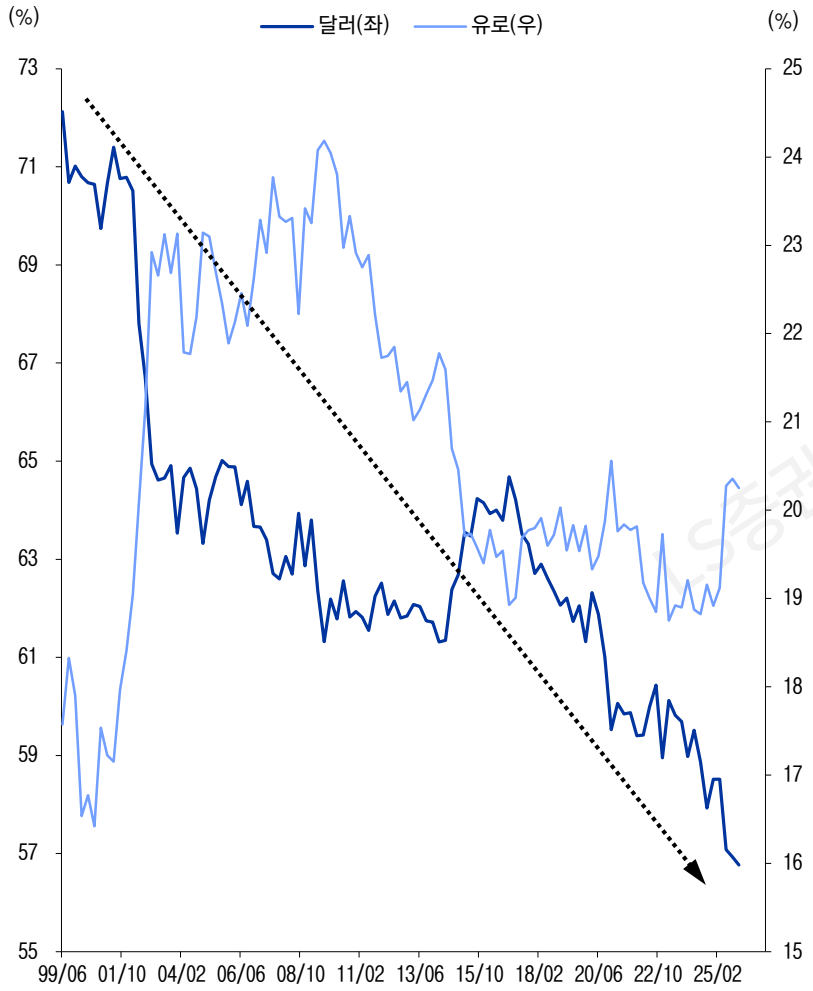


주: 6개국은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편의수익률은 FED 방법론에 기반한 추정치('+' 미국채 프리미엄 존재)
자료: Du·Keerati·Schreger(2025),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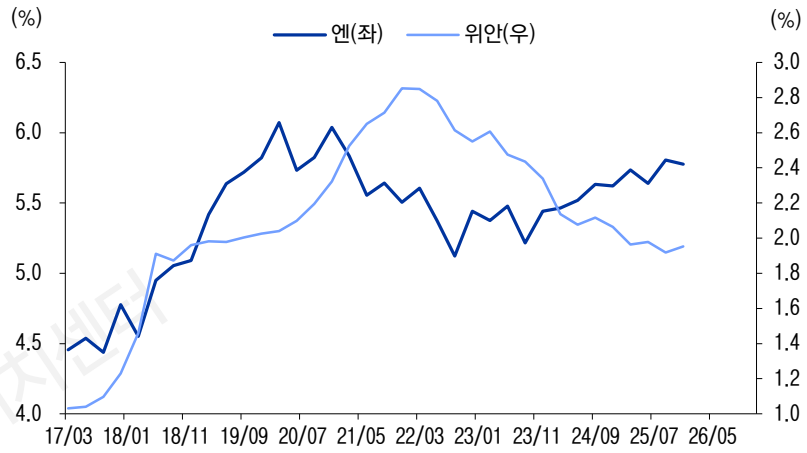
달러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

달러와 유로화 글로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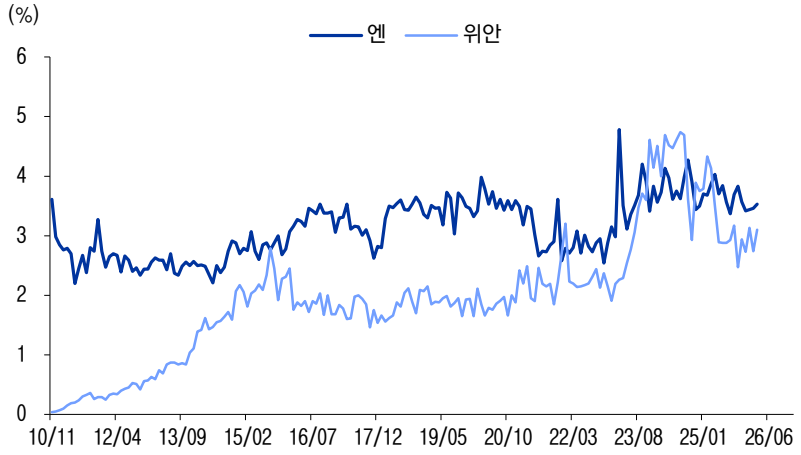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엔화와 위안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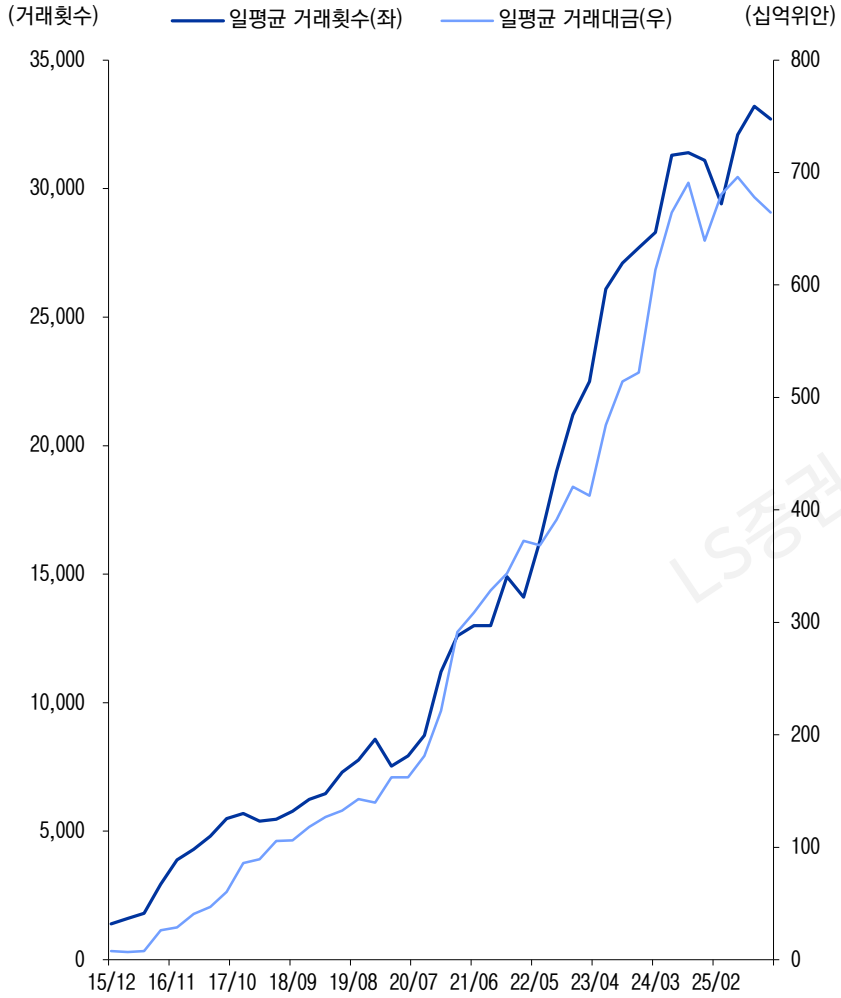
엔화와 위안화 Swift 결제비중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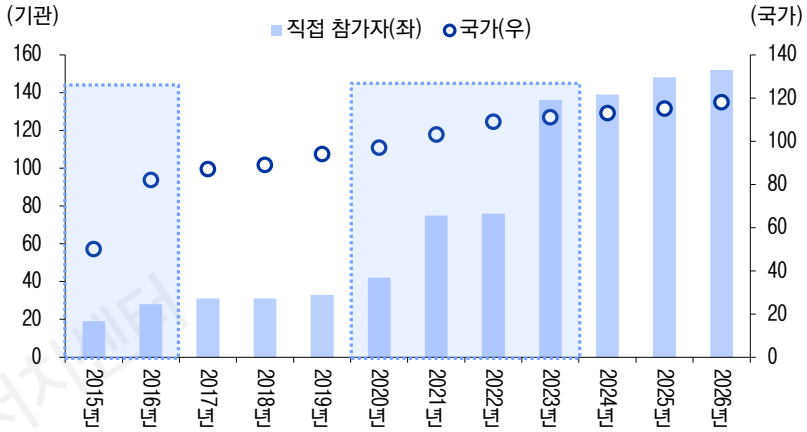
틈을 노리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거래량 및 거래횟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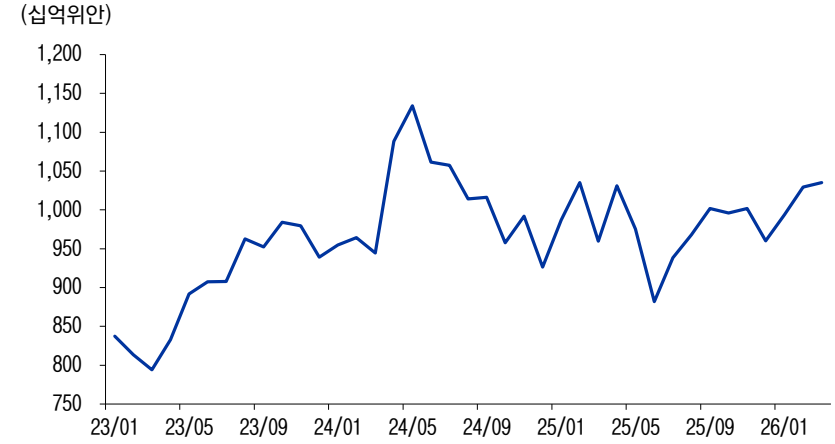


자료: CEIC, CIPS, LS증권 리서치센터

위안화 결제시스템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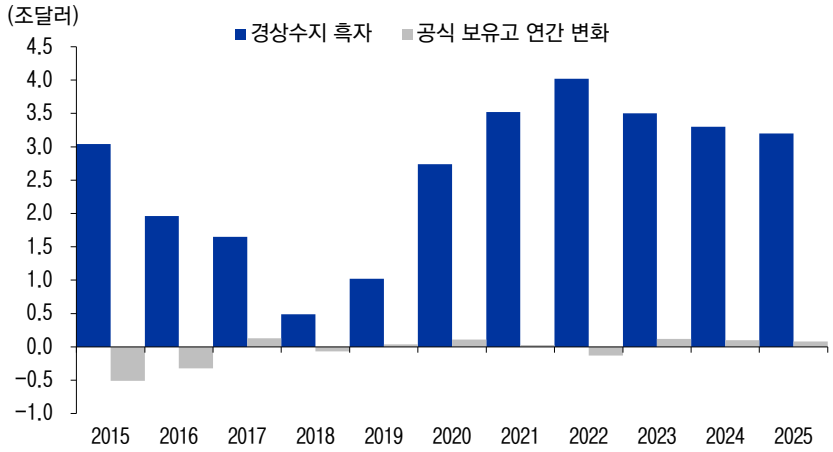
홍콩 위안화 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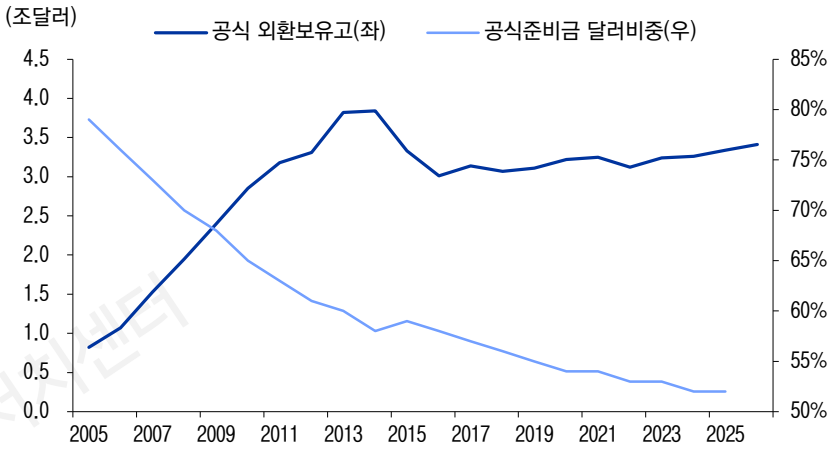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중국도 달러를 버리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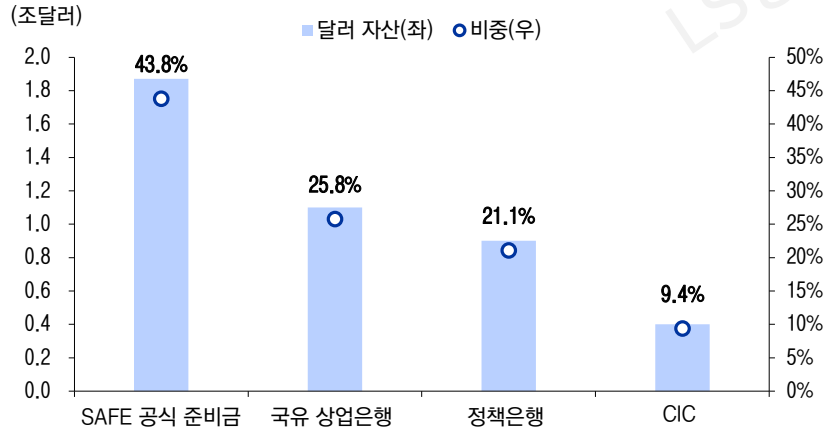
중국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연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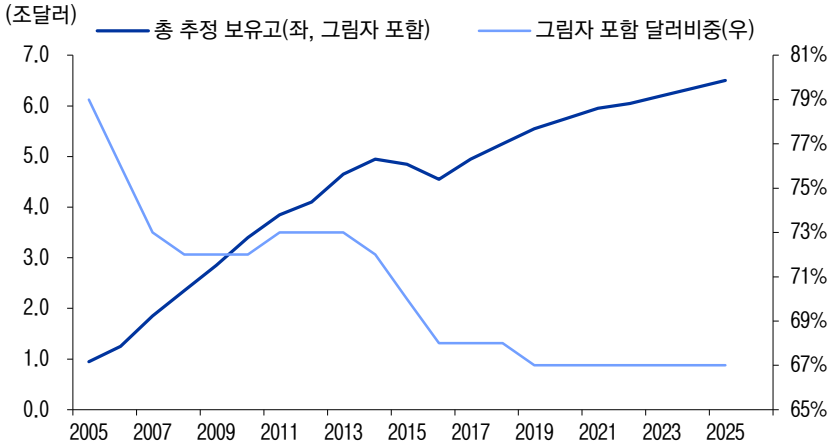
중국 외환보유고와 달러비중



중국 달러자산 보유액과 비중



중국 총 추정 외환보유고와 달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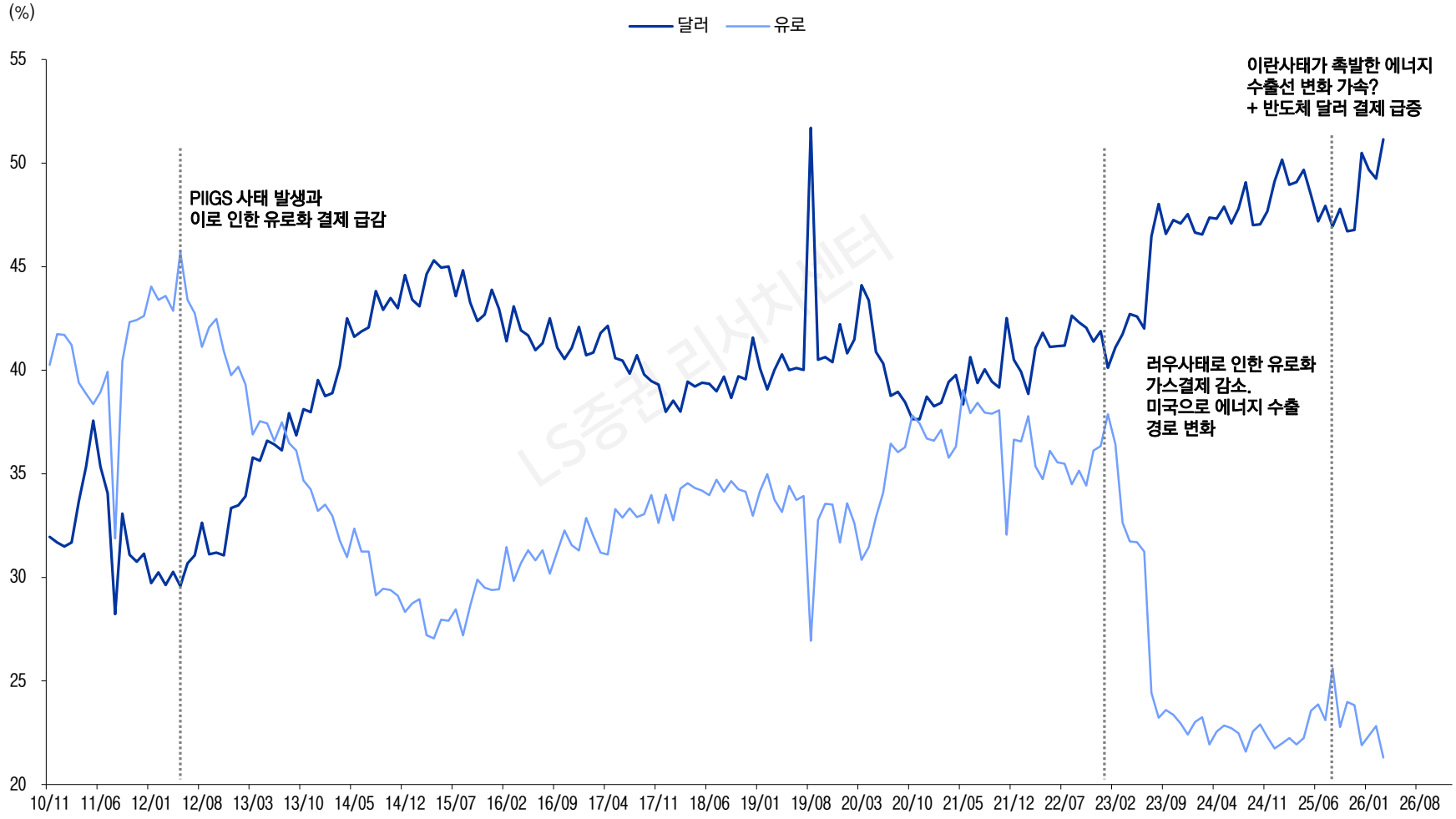


주: 국유 상업은행은 공상, 건설, 농업, 중국은행, 정책은행은 국개행과 수출입은행
자료: Brad Setser, CFR, SAFE, IMF,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믿지만 버릴 수는 없는 달러

달러와 유로화 Swift 결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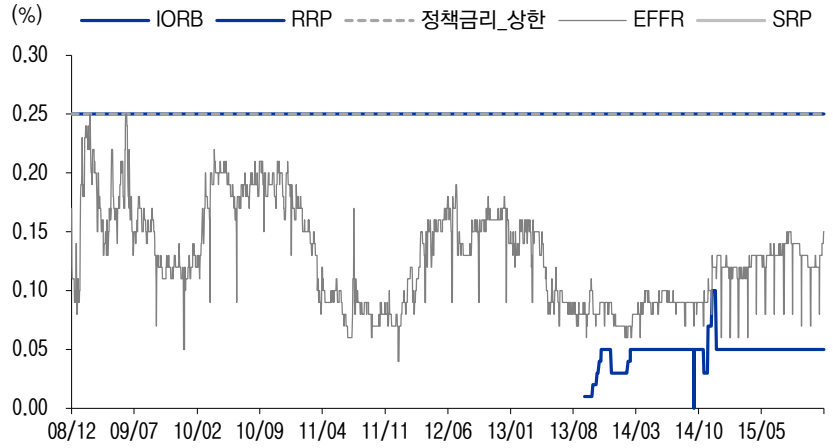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Ⅱ-3 새로운 연준호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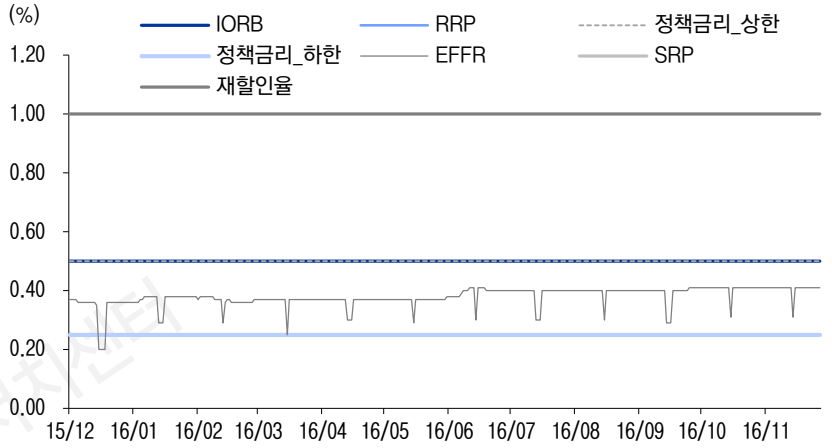
케빈 워시의 정책 지향점
달러에는 단기 중립요인으로 판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정책 시스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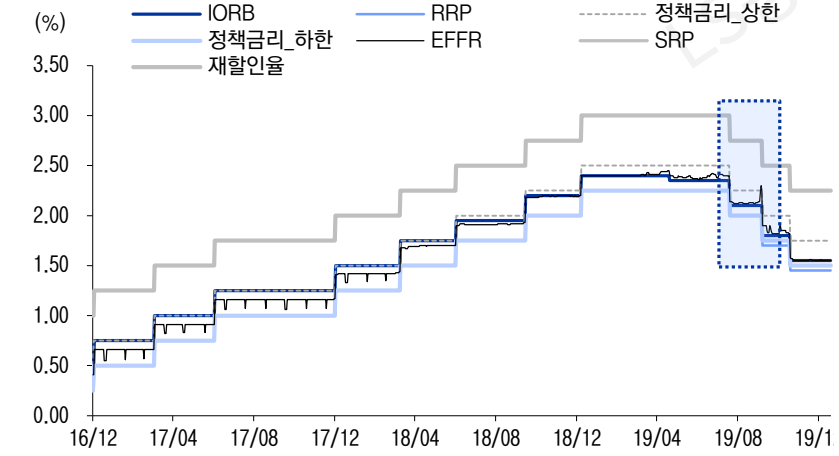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와 QE정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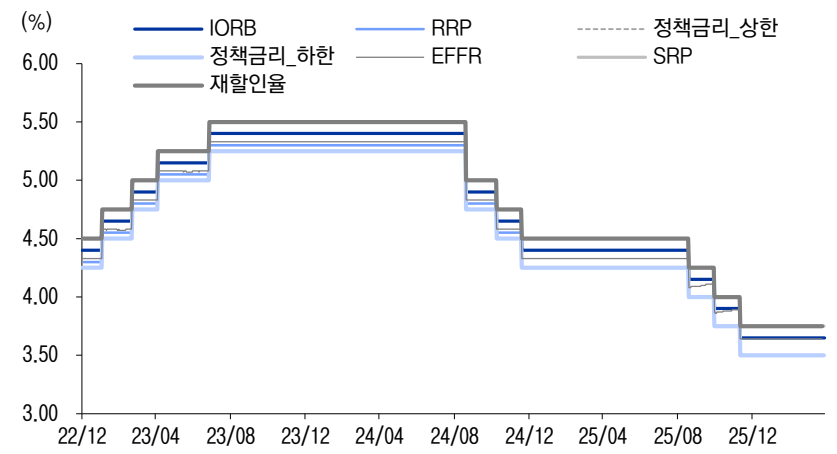
QE지속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변화



QT시행과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문제 발생



SRP 도입 이후 금리 체제 안정



자료: FRED,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케빈워시 체제에서의 금리 라인 변경 가능성

● 연준이 결정하는 시장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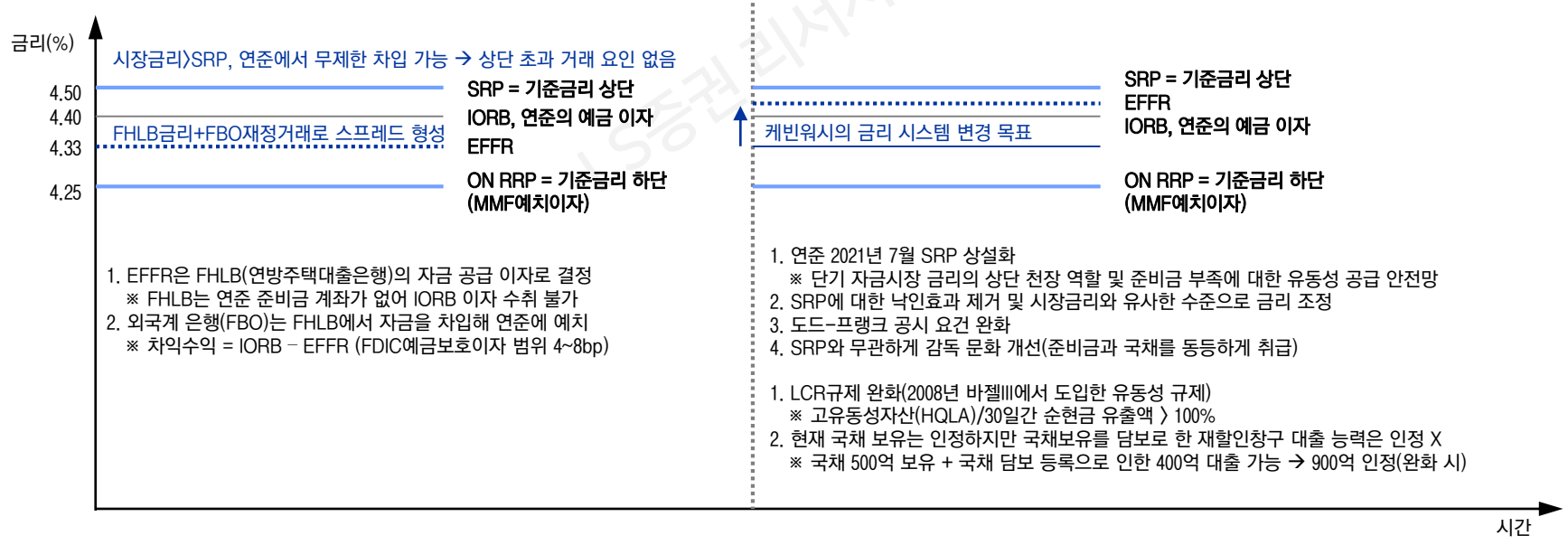
- 현재 미국의 금리 체제는 RRP와 Standing Repo를 통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

  1) 연준 내부의 높은 지준금이 금리 형성을 왜곡, 2) FHLB의 낮은 자금 공급 + FBO의 차익거래로 EFFR이 IORB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속

● 시장금리의 결정을 시장의 손으로

- 케빈워시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QT를 시행한다거나,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무리
- 정책 목표는 명확하게 연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장 체제를 민간 기업의 손으로 돌려준다는 것
-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우선시 되면서 분석에 있어서도 목표를 위한 정책 변화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 존재

현재 금리 밴드와 케빈워시의 정책 목표 변경



자료: FRED,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규제개혁 – 커브 스티프닝 – 금리 인하의 장기적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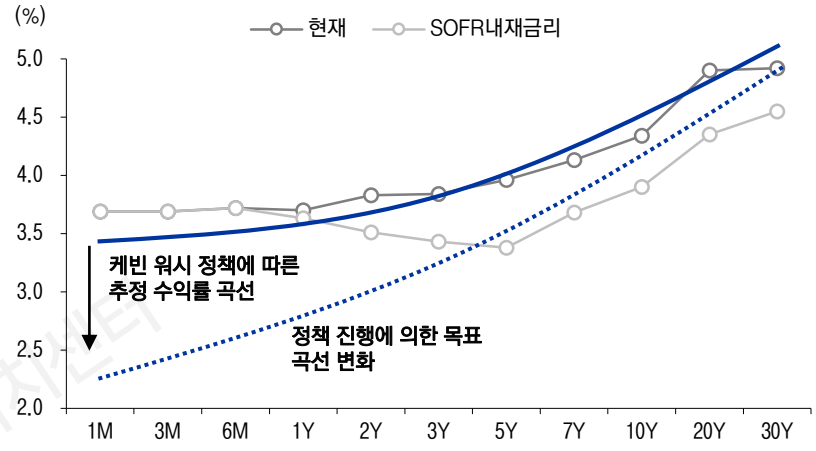
● 규제 완화에 주목하는 이유

- 금리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텝은 민간은행이 채권 매수 혹은 자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
- 준비금 수요 감소가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중개 기능 회복 이후 점진적 변화 전망

- 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연준은 보유 채권의 만기 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일드커브 변화를 추구. 이는 여유가 늘어난 은행이 민간에서 자금을 더 많이 회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확인되는 순간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 압박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가능성 존재

케빈워시 체제의 장단기 목표 금리 레벨



시장 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과 금융시장 효과

정책 수단	대차대조표 변화	금융시장 효과
LCR개혁 국채 담보 가치 HQLA인정 준비금 수요 감소	부채: 지준금 ↓ 자산: 총액 ↓	EFFR 〉 IORB 은행간 거래 증가 단기 금리 하락 여력
SLR완화 국채/지준금 분모 제외 레포 중개 확대	부채: 지준금 ↓ 자산: 대출/레포 ↑	SLR완화 딜러 국채 흡수 ↑ 금융 중개 기능 강화
Reverse OT 장기채 → 단기채 재투자 듀레이션 축소	자산: 총액 불변(구성변화) (장기채↓ 단기채↑)	장기 금리 ↑ 기간 프리미엄 확대 수익률 커브 스티프닝
MBS 재투자 중단 만기 도래 MBS 소각 섹터 신용 배분 중립	자산: MBS ↑ 부채: 지준금 ↓	모기지 시장 중립 연준 섹터 개입 종료 재정/통화 경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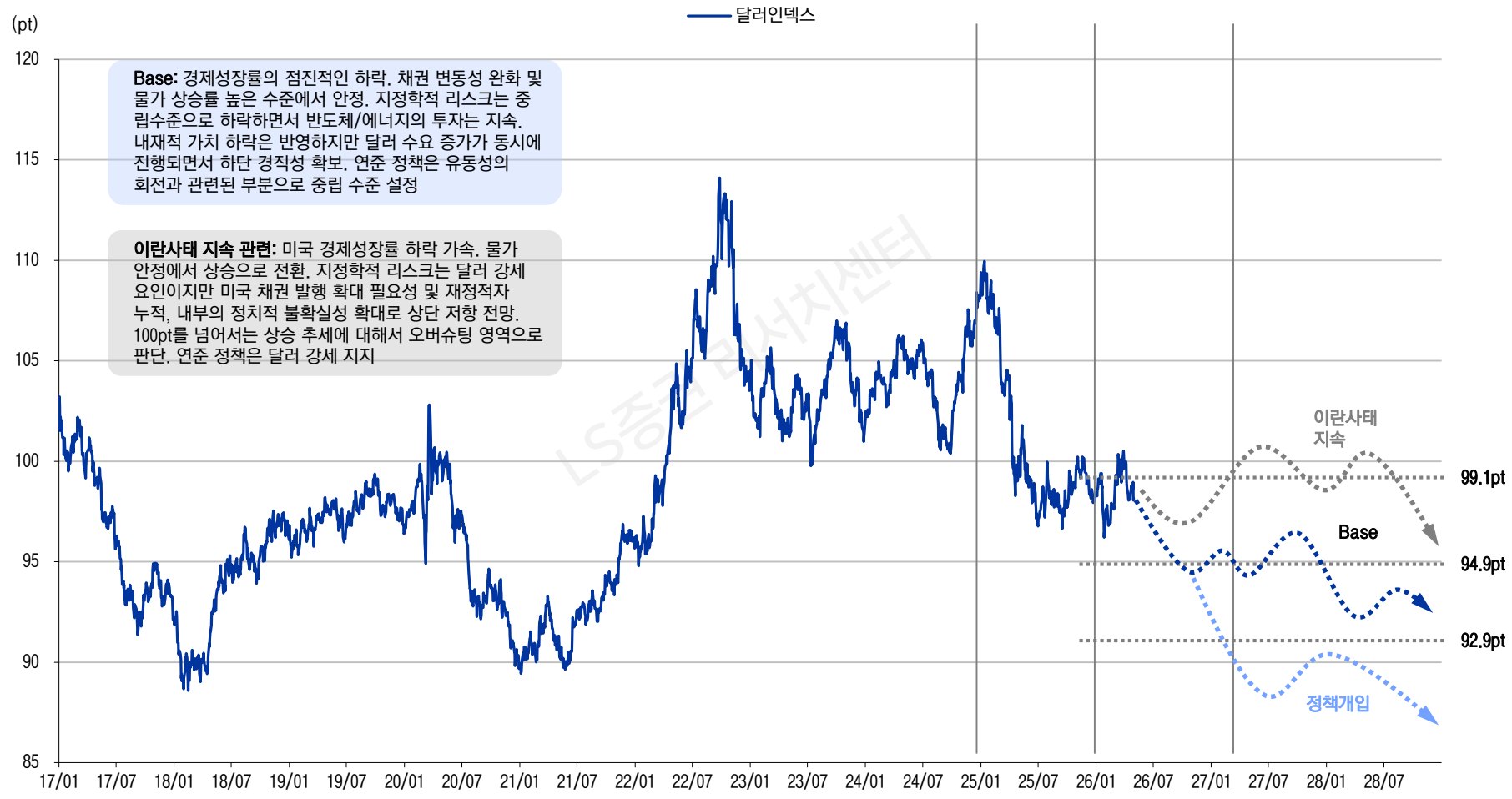
연준 정책 변화 신호(SRP 일상화, 신규 프레임워크 논의 (취임 후 즉시))
↓
규제 개혁(LCR, SRP 구조 변경 및 듀레이션 축소) (3~12개월)
↓
규제개혁 시행(규제 완화 시행, 지준금 수요 감소, EFFR 상승) (12~24개월)
↓
점진적 정상화(커브 스티프닝, 기준금리 인하) (24개월 이후)
↓
목표 수준 충족 (초과 지준 부활, 연준 독립성 강화, 민간 금융 활성화)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인덱스 안정적인 하락, 중단기 하방 지지 전망

달러인덱스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I

원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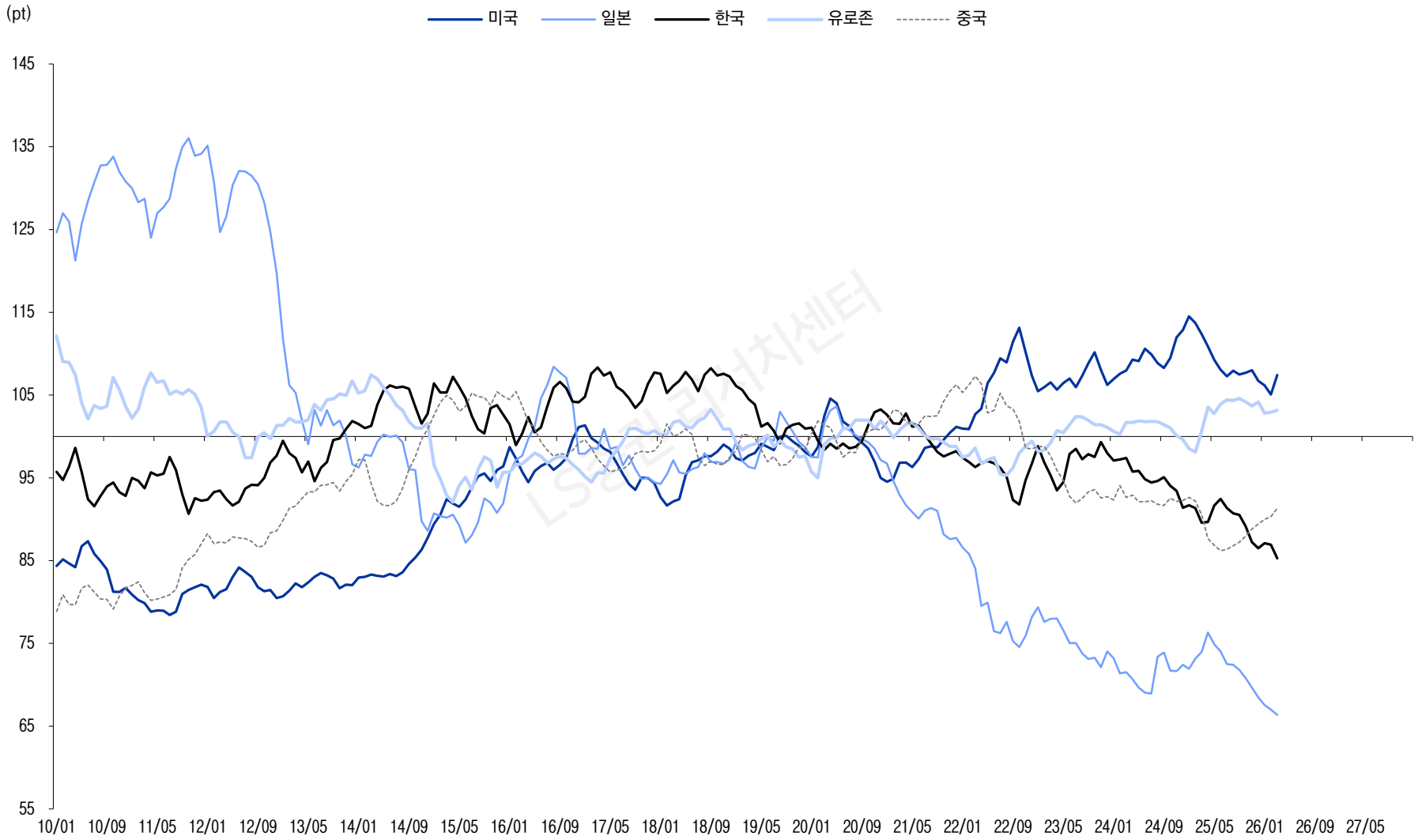
기다리던 고도(Altitude), 낯설다

- 경기와 금리, 원달러환율 하락을 지지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높아진 고도는 인정하자

Part Ⅲ-1 경기와 금융환경, 하락 우위

단기적 경기 확장 구간
유동성과 금리도 하락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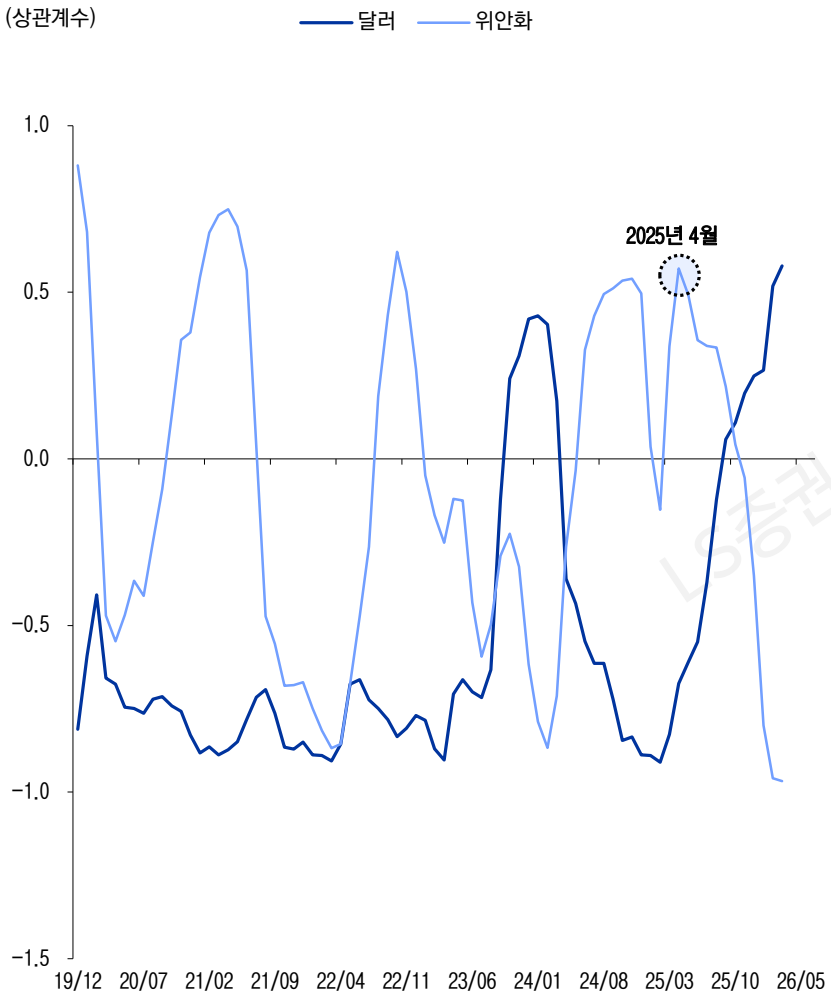
실질실효환율 기준 환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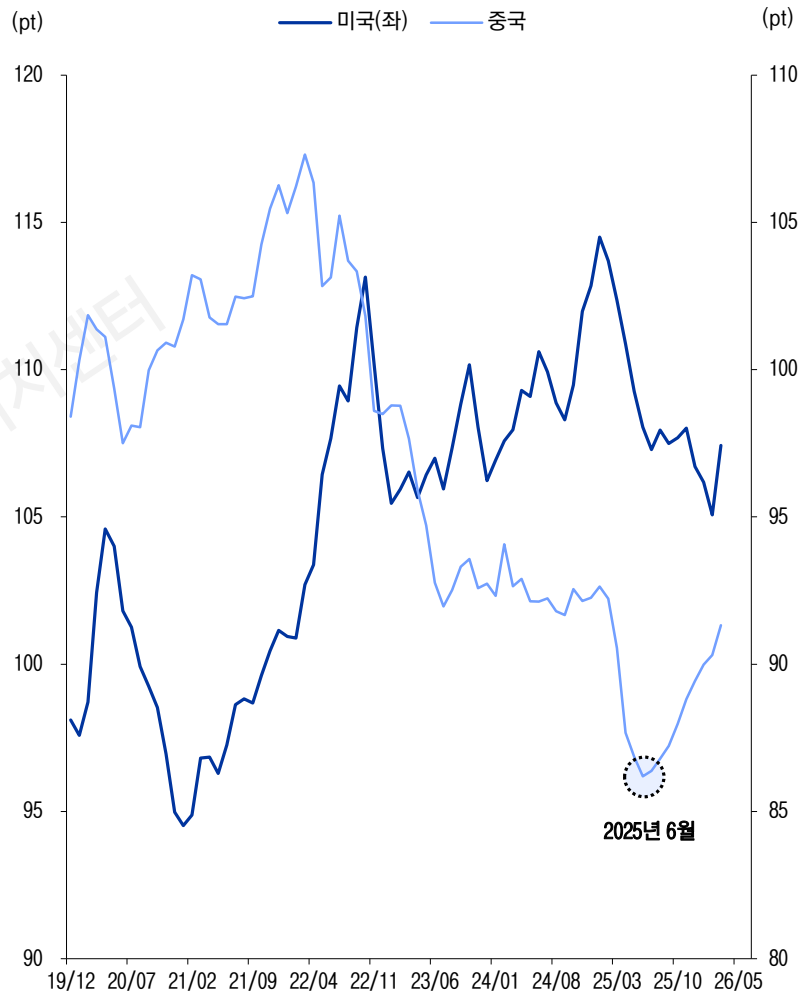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환율과 달러, 위안화 상관계수

원화와의 상관계수(11M Rolling)



달러와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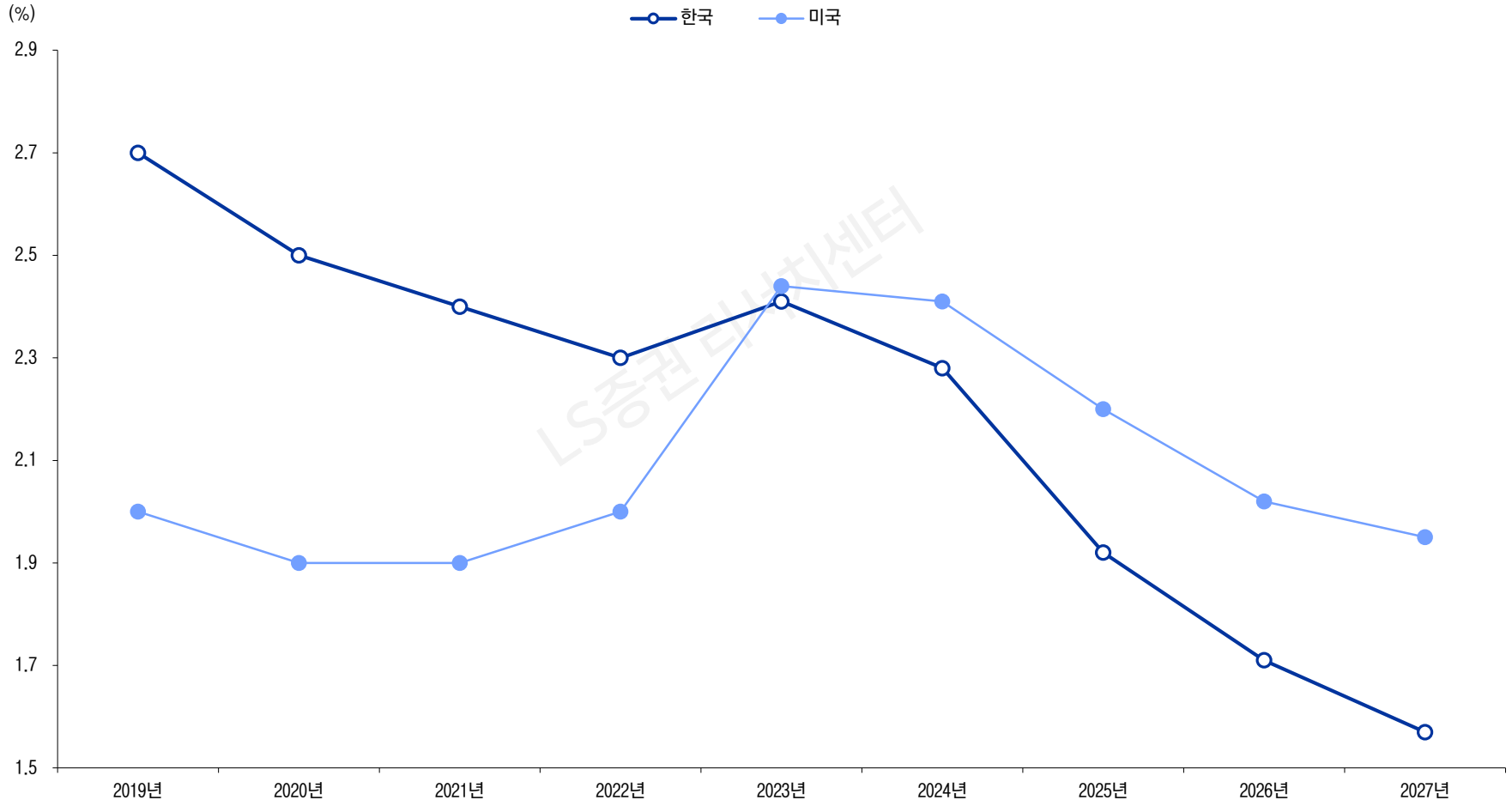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OECD 한미 잠재성장률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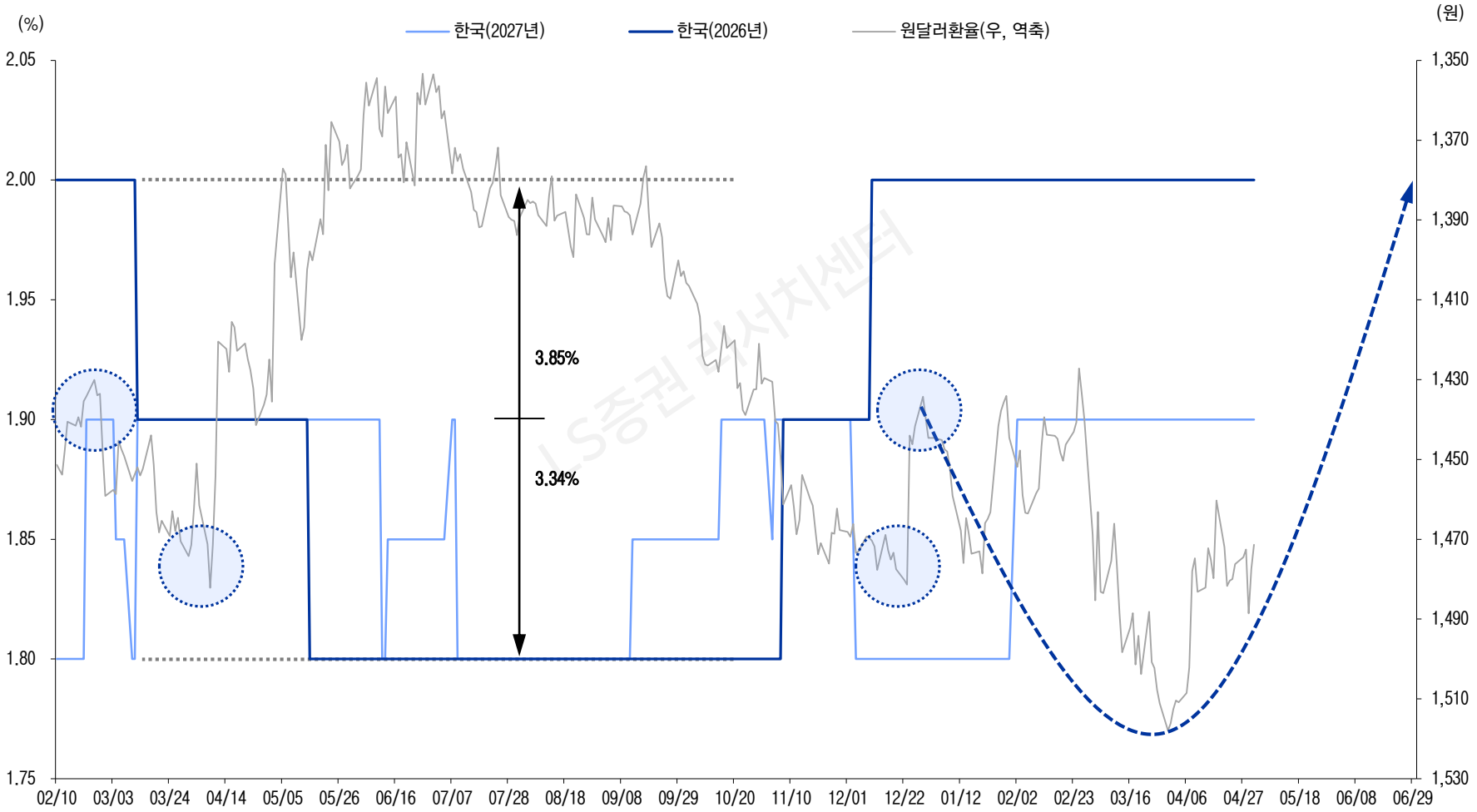
미국보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은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잠재성장률은 결국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환율 레벨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잠재성장률 추이는 높아져 있는 원달러환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접근 가능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성장률 기대감이 원화의 가치에 반영

성장 전망이 틀리면, 환율 전망도 틀린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결국 환율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란 사태로 한국 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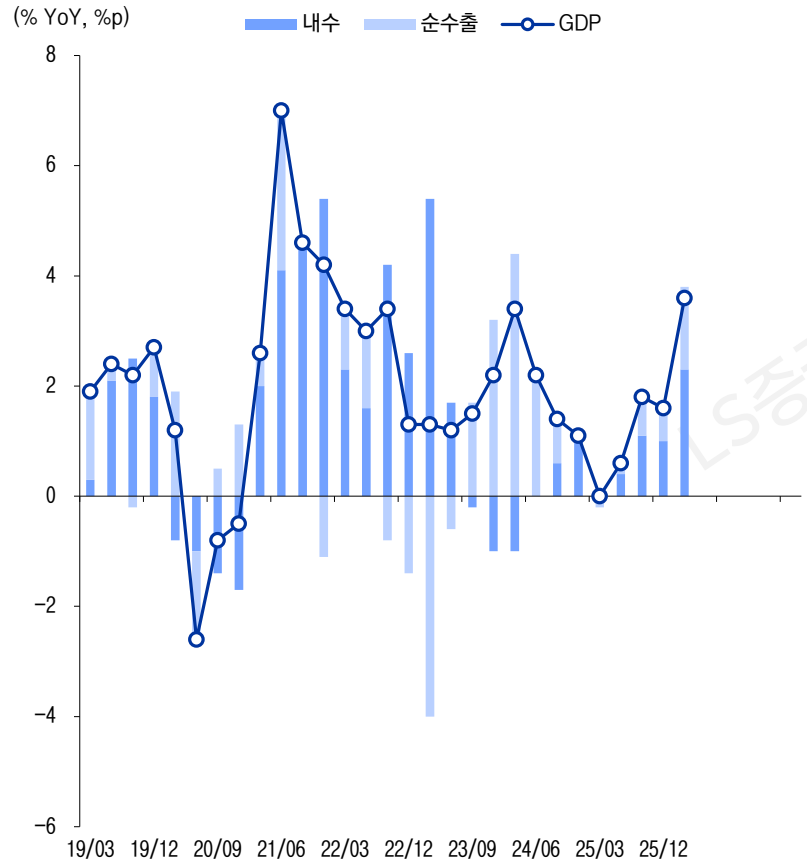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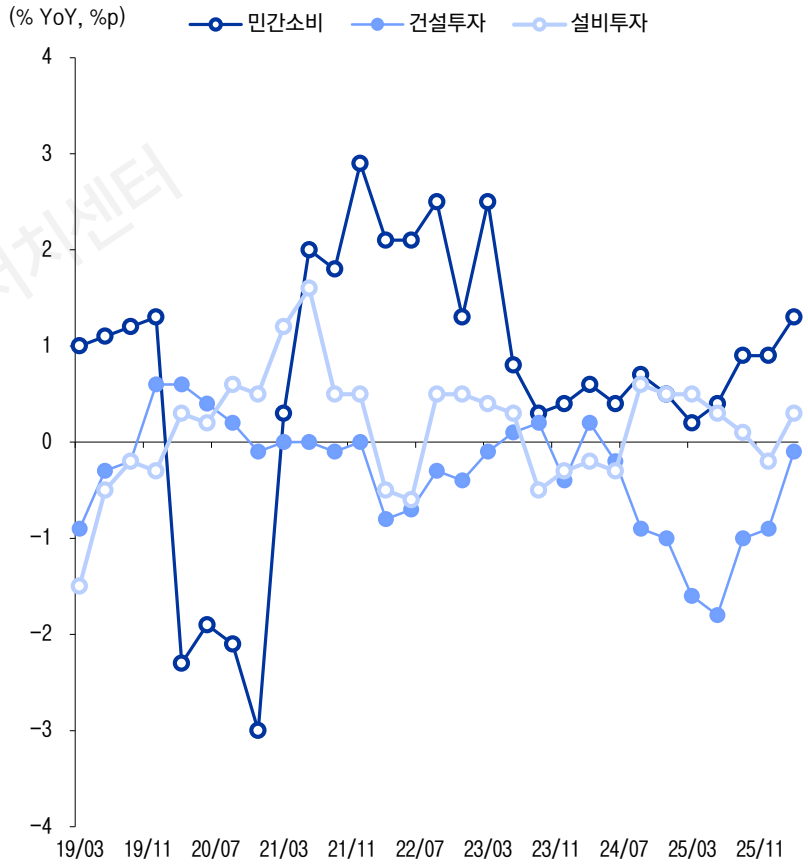
낮아지는 민간소비 기여도와 높아진 민간투자 기여도

내수부문 성장세 주목 한국 내수 성장 기여도가 기대를 상회. 민간소비는 자산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를 강하게 보였으며, 설비투자 역시 성장기여도 (+) 전환. 여전히 건설투자가 약점으로 남아있지만 2025년 2분기 이후 성장 기여도 (-) 폭을 꾸준히 축소

한국 내수와 순수출 성장률 기여도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성장 기여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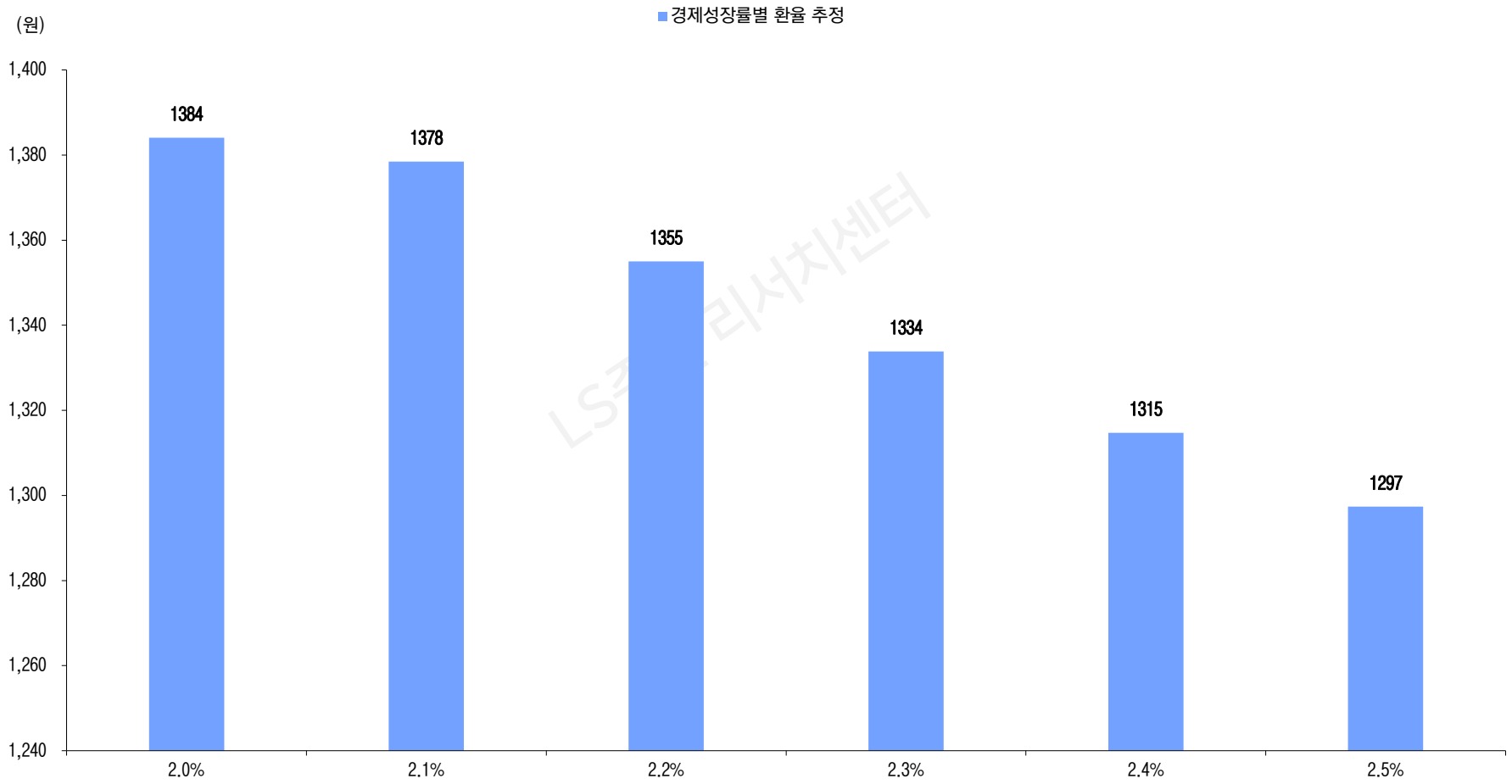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성장률에 따른 환율 추정

성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기적인 금리, 리스크, 유동성 변화를 제외한다면 환율은 그 국가의 성장 기대를 반영. 여기에 더해 금리, 주가, 리스크, 유동성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에 대한 전망 혹은 경기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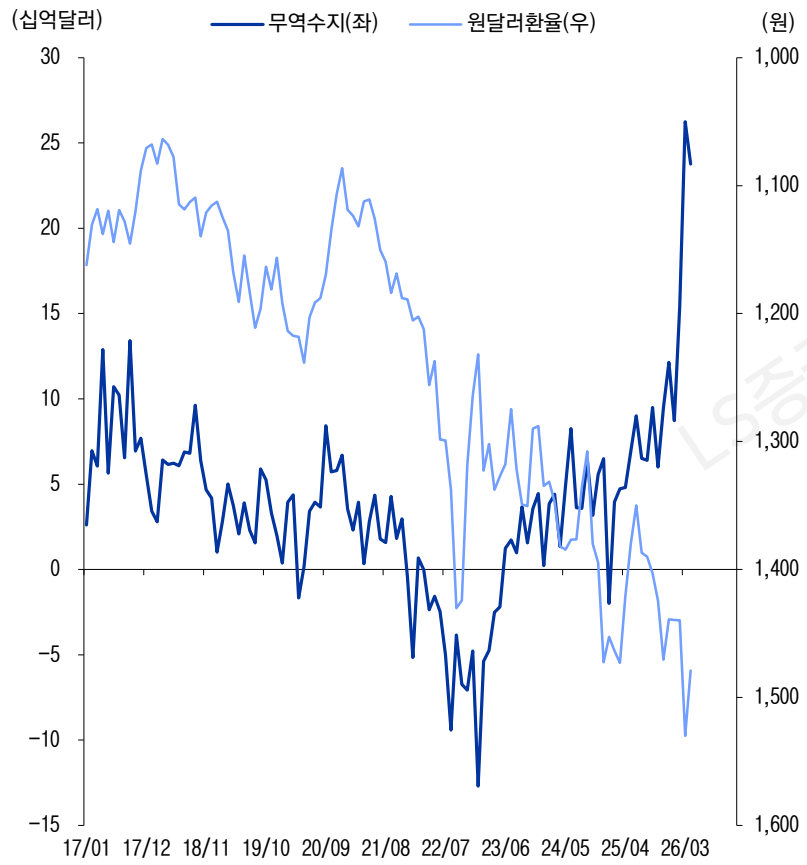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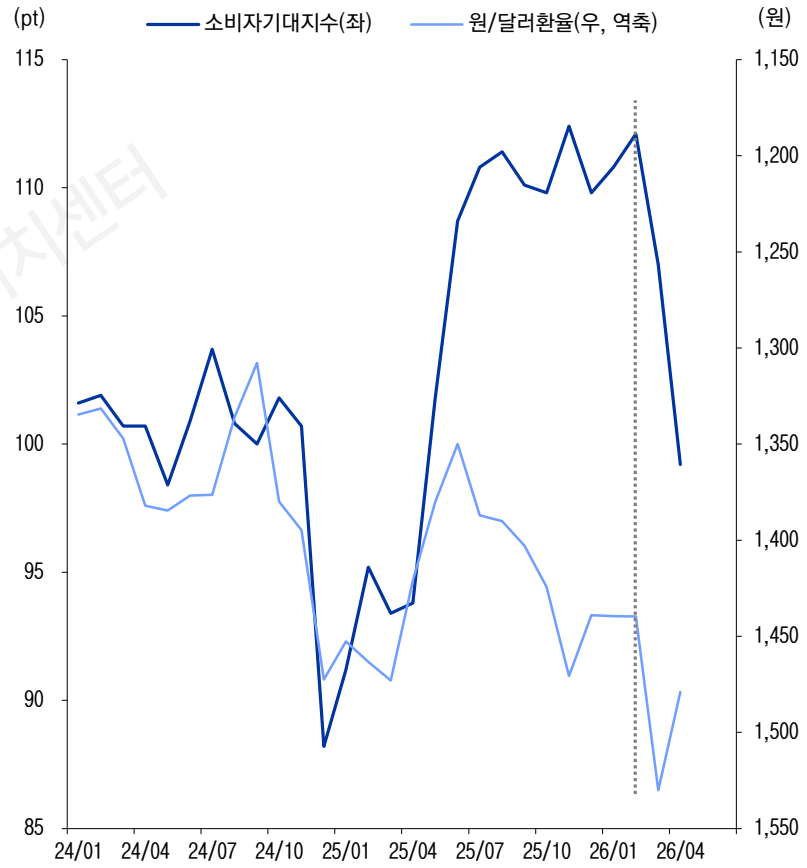
한국 경제성장률과 원달러환율의 괴리

무역수지와 원달러환율 디커플링 일상화 무역수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은 상승추세를 지속.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늘어난 금융시장 규모를 반영한 결과. 새로운 뉴노멀 환경으로 판단

한국 무역수지와 원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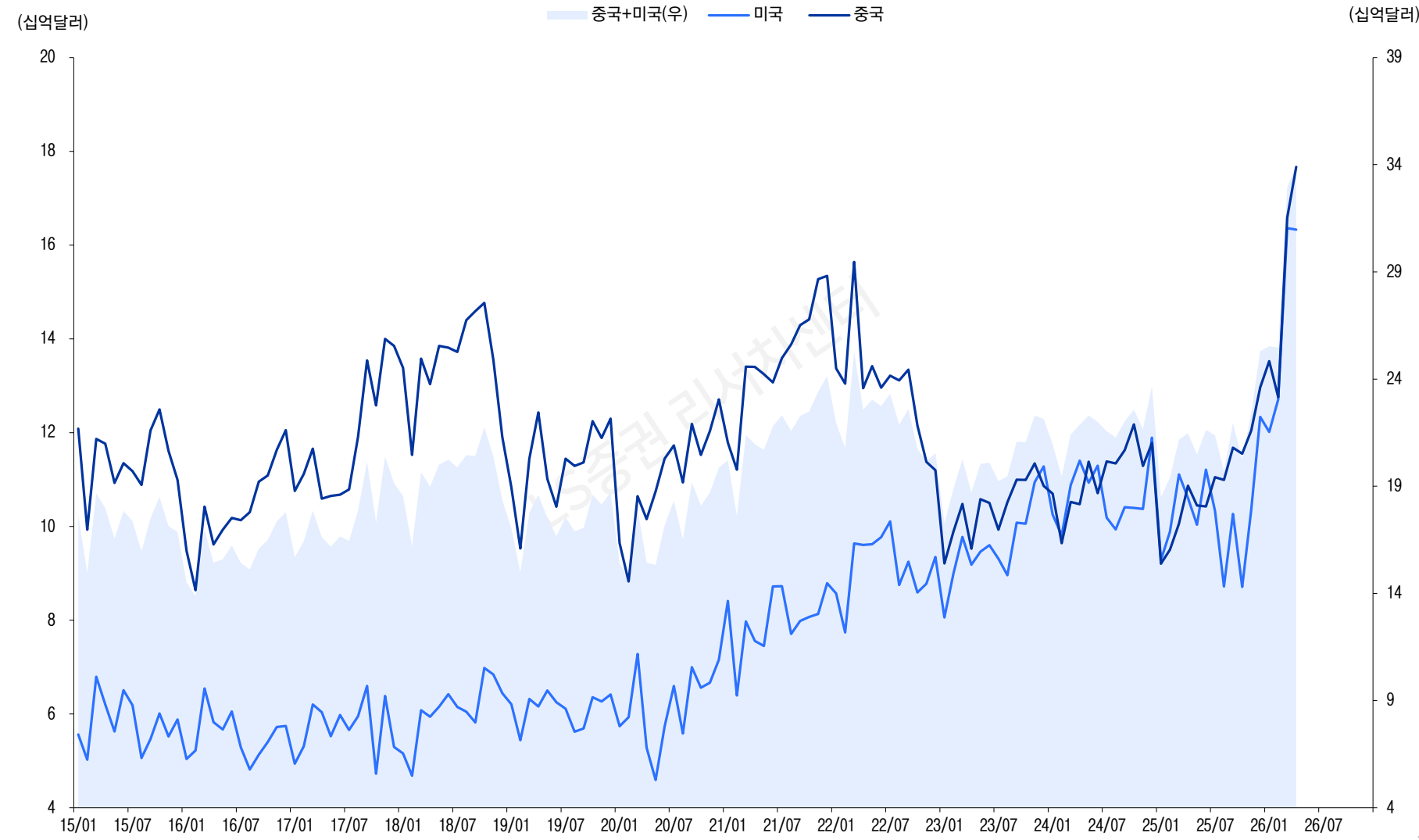
한국 소비자기대지수와 원달러환율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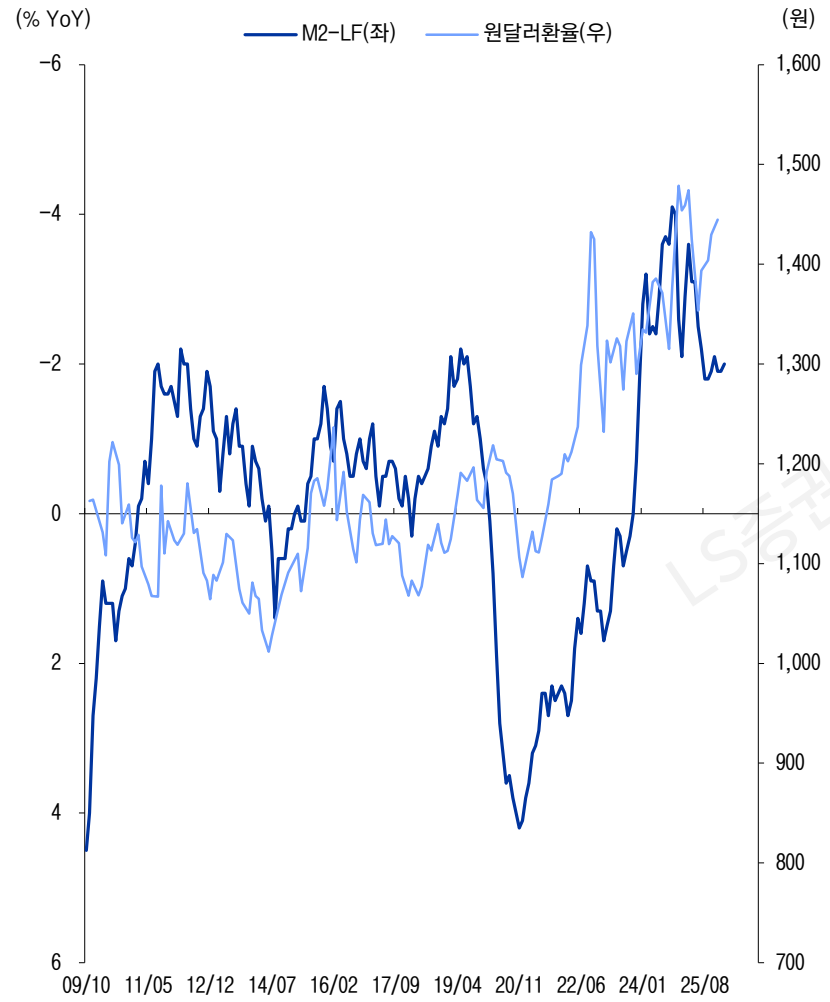
한국 G2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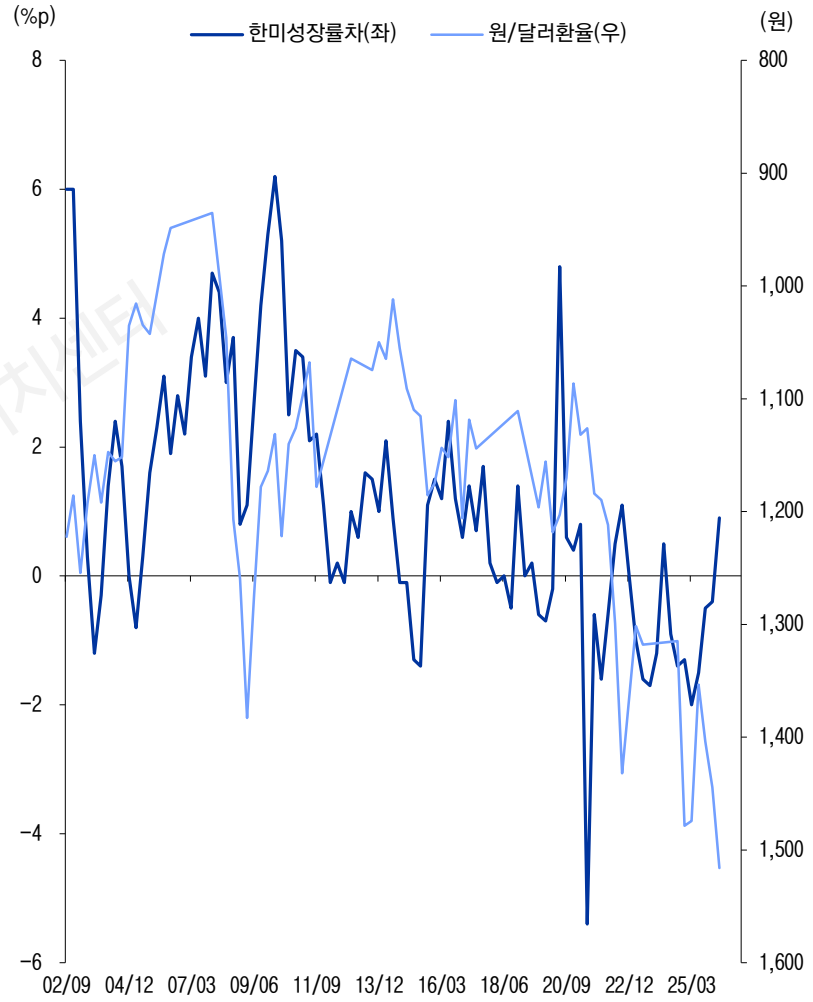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유동성 환경은 원달러환율 하락을 지지

한국 유동성과 원달러환율



한미성장률차와 원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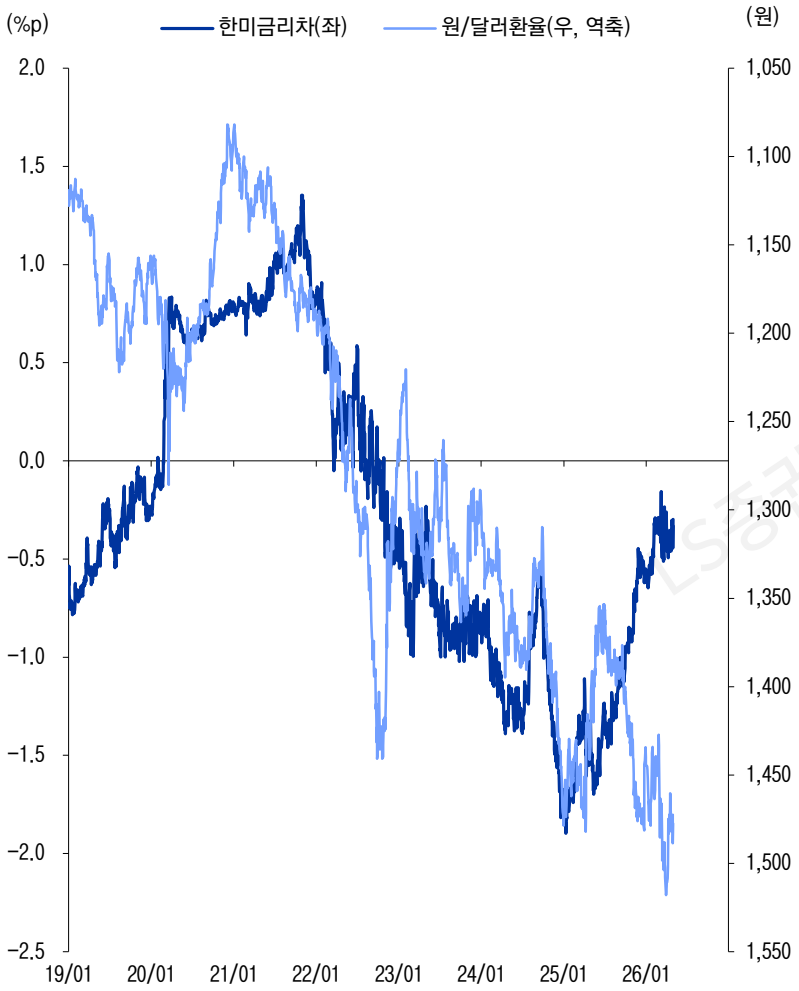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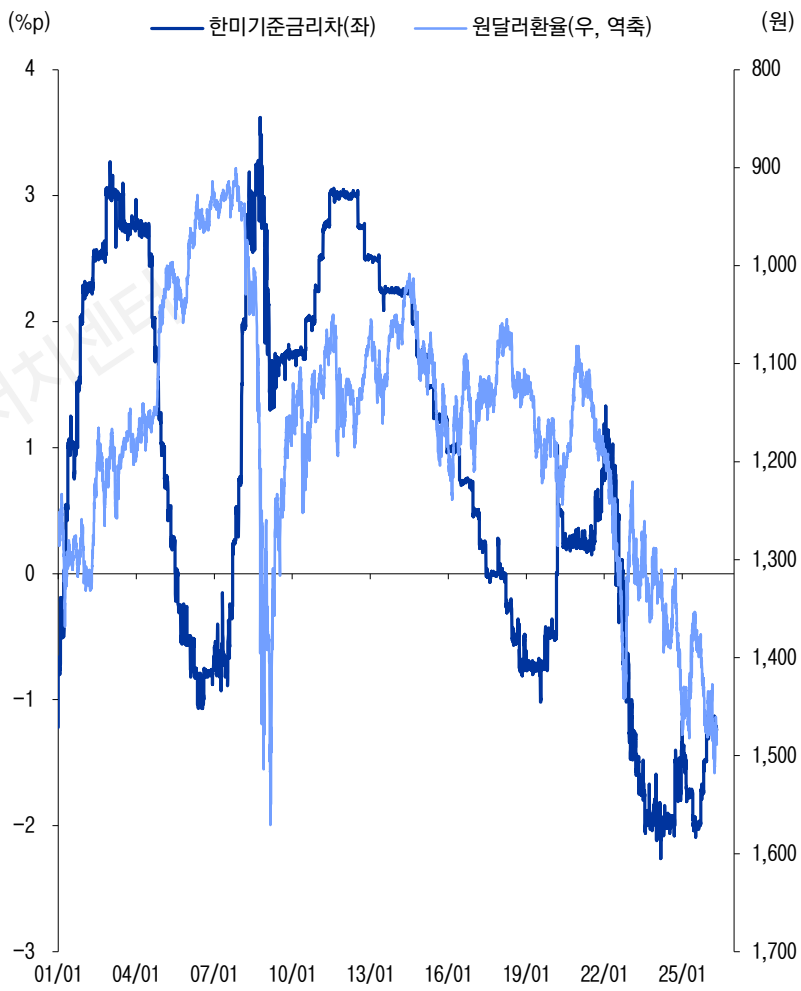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한미 금리차 역시 원달러환율의 하락을 지지

한미 금리차와 원달러환율



한미 기준금리차와 원달러환율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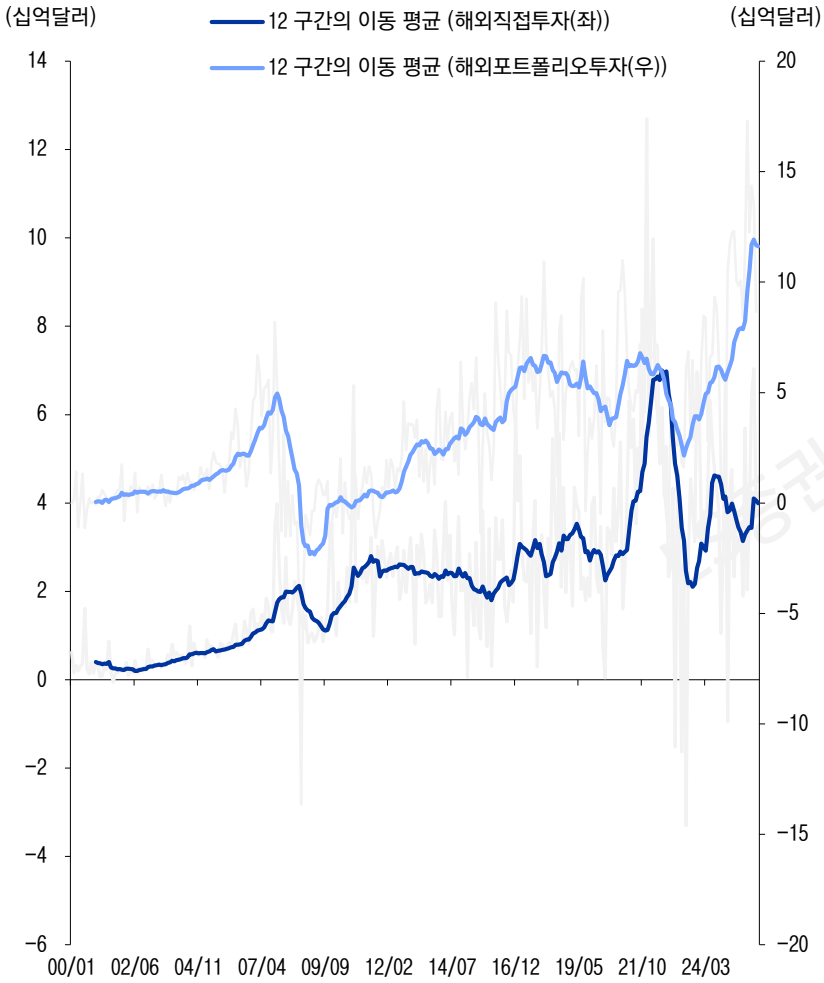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Ⅲ-2 환율 변화의 구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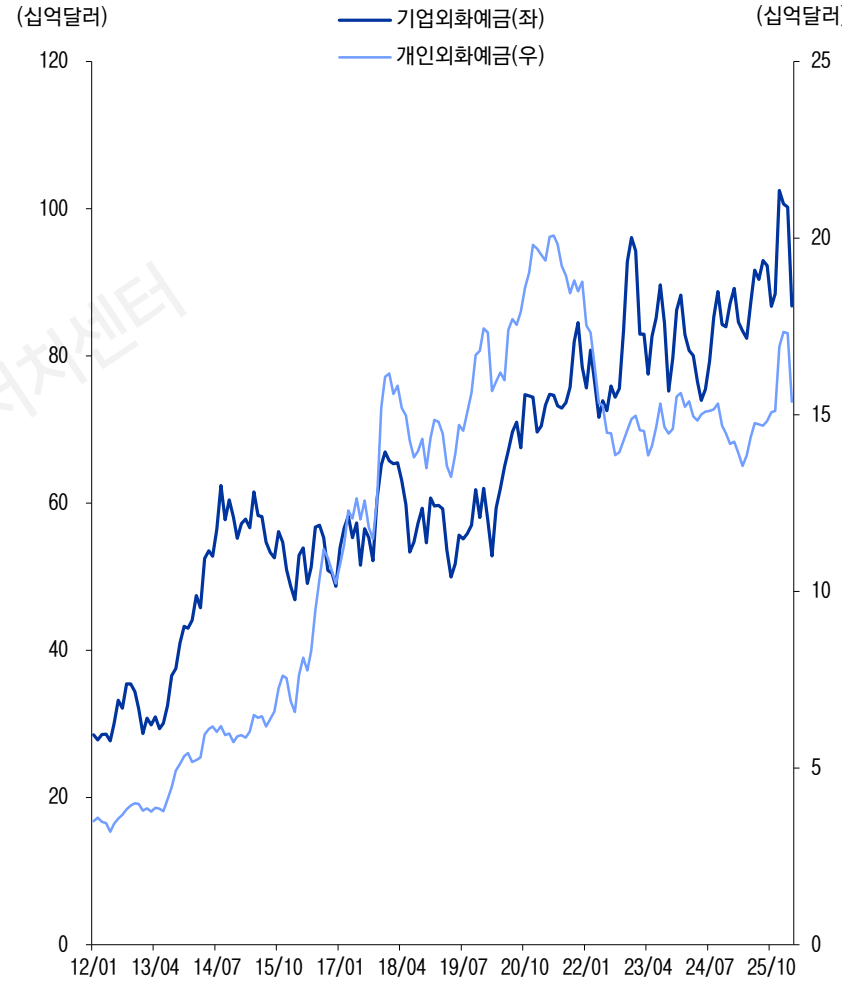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과도기적 변화의 완화 구간

해외로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업 및 개인 외화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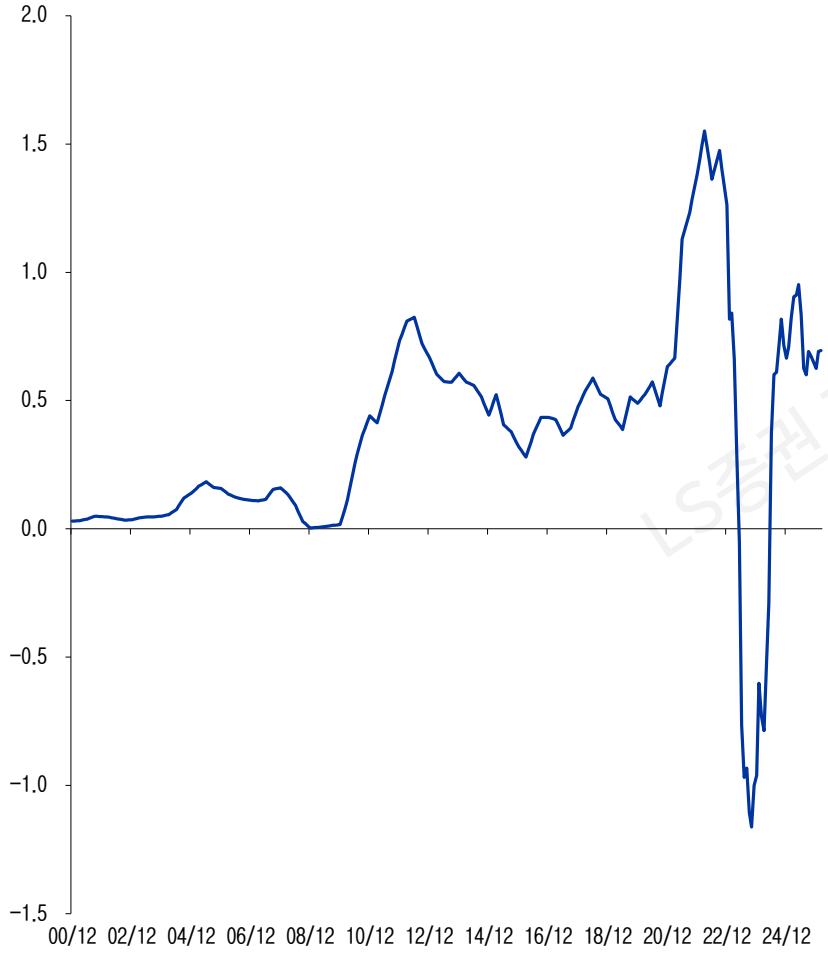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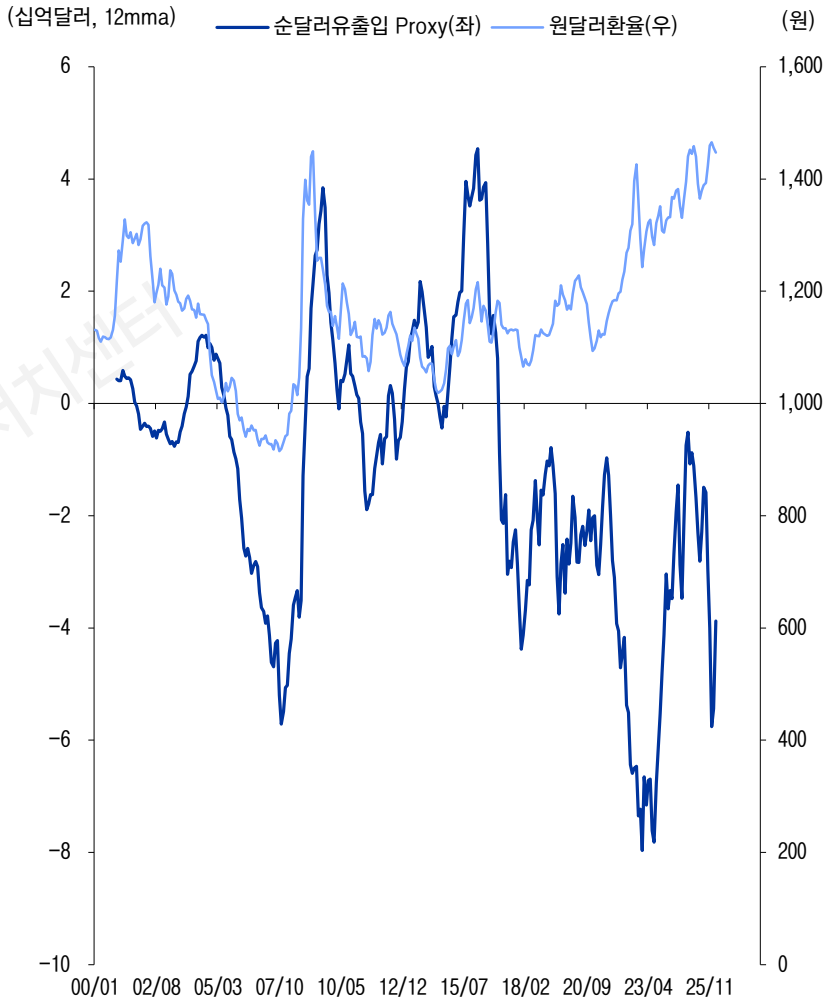
해외에서 번 돈은 다시 해외로, 결국 달러 유출 지속

기업이익 해외 재투자

(십억달러, 12mma)



해외 투자를 고려한 순달러 유출입 추이와 원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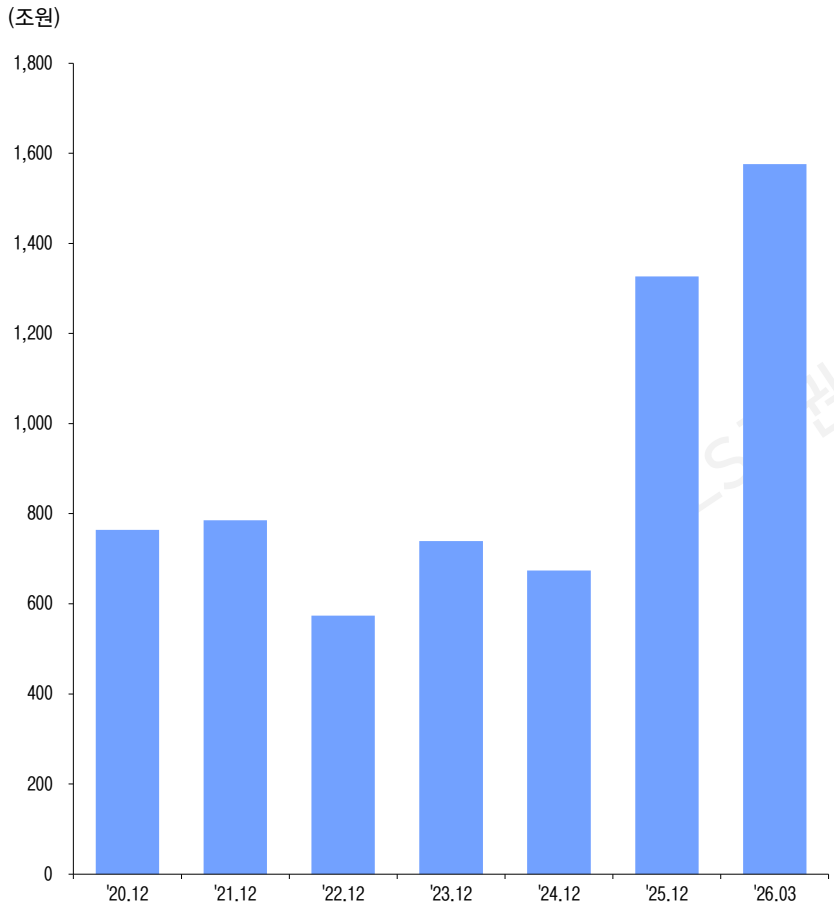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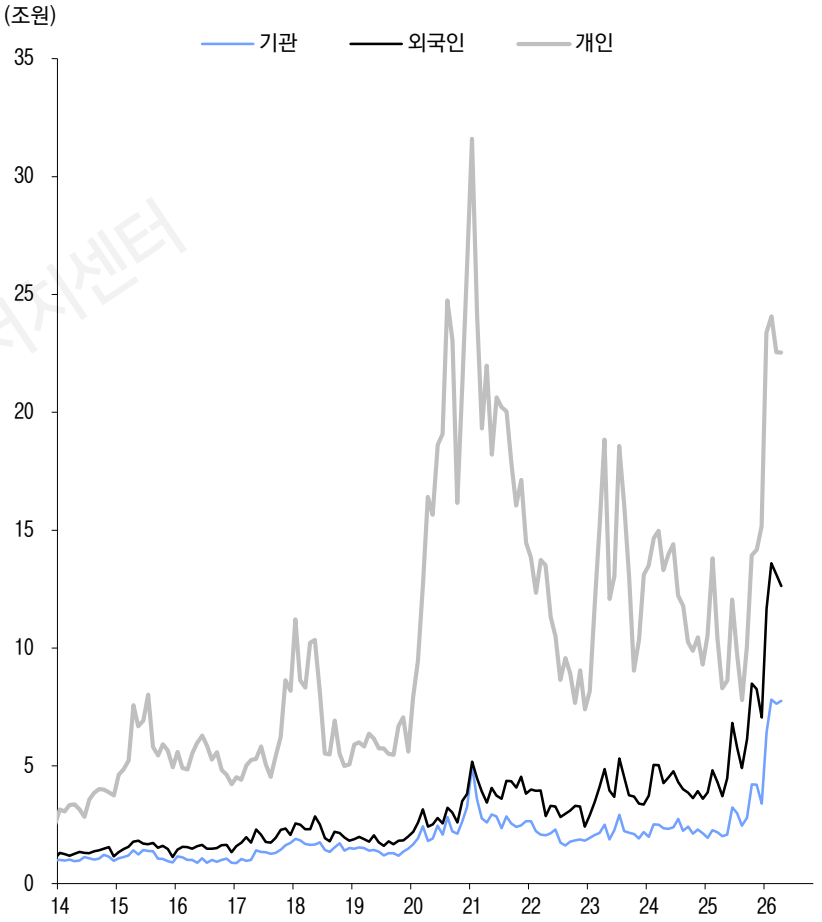
조금씩 바뀌는 국내 금융시장 분위기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최초 도입. 엄격한 계좌개설 요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금융당국은 2025년 국내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에게 계좌개설을 허용. 한국으로의 추가 자금 유입 기대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



투자주체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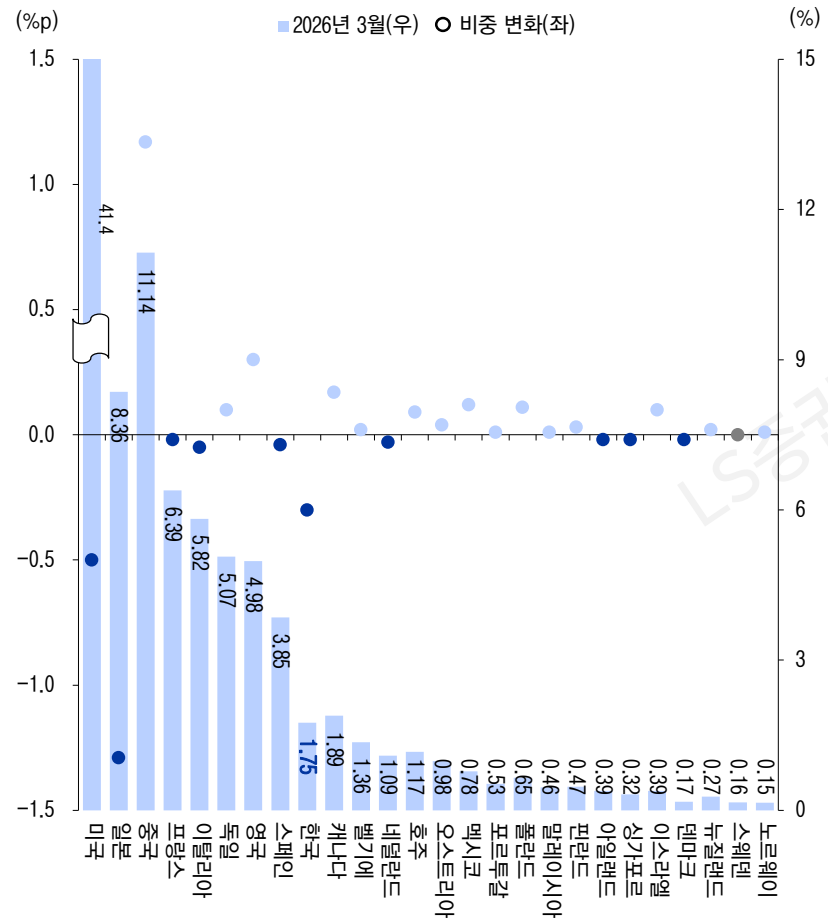


자료: KRX,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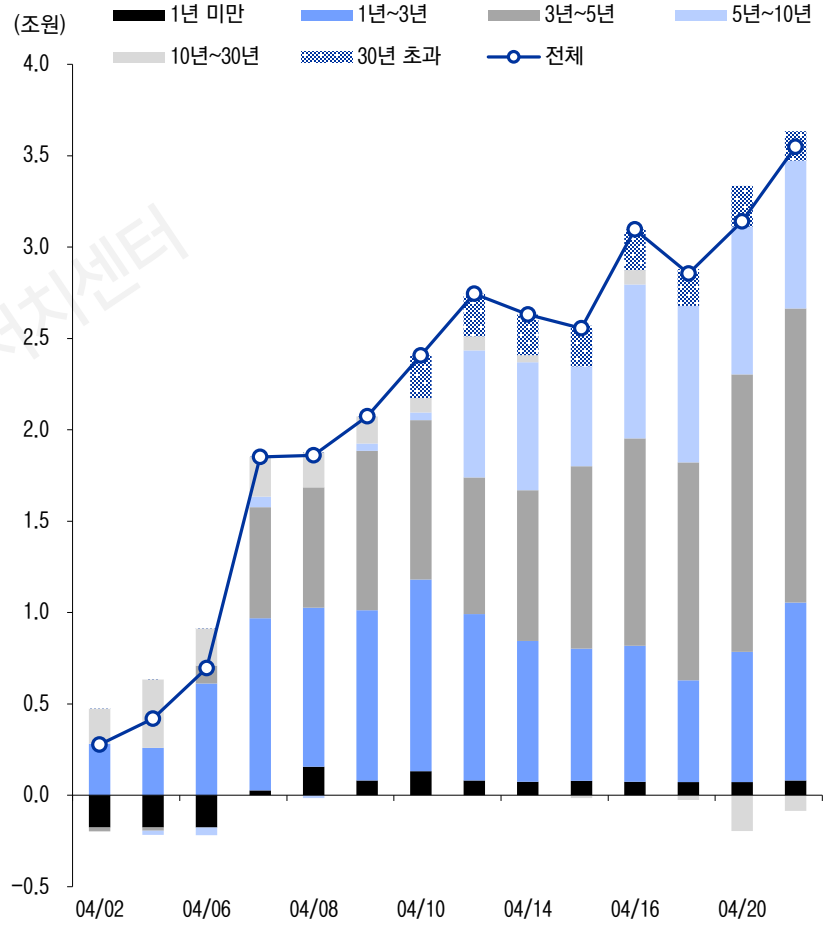
WGBI편입도 달러 유입 조건

4월 1일부터 WGBI에 대한 단계적 편입 시작. 원화 평가절하로 지수 내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채 발행 물량 등에 따라 비중은 기계적으로 변화 가능. 2026년은 편입 이슈로 인한 채권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WGBI 국가별 편입 비중 및 변화



국고채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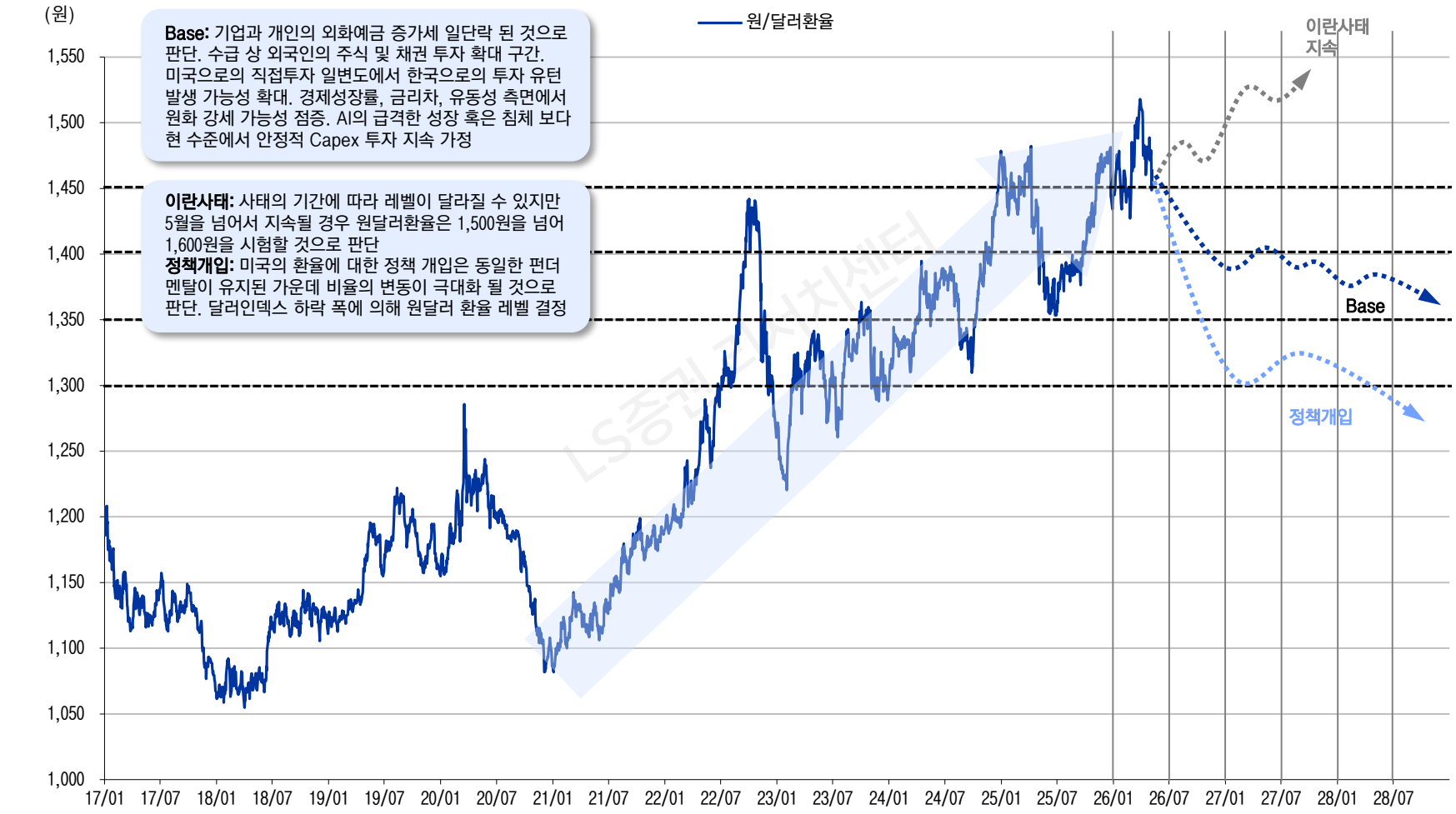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FTSE Russell, LS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환율 고레벨 유지. 다만 현재의 레벨 반영은 과하다

원달러환율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